



04  
**POWER INTERVIEW**

“초졸도 마음먹으면  
변호사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이강일 변호사

10  
**HAPPY LAWSCHOOL**

공학도에서 로스쿨생으로...  
이현지의 두 개의 언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기 이현지

30  
**LAW FIRM TOUR**

율촌이 말하는 ‘함께 일할 동료’ 기준은?  
“협업·책임감”

법무법인(유) 율촌



“따뜻한 마음씨에 필적할 매력은 없어.”  
후에 그녀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씨에 다정하고 열린 태도라면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두뇌보다도 더 매력적일 거야.”

- 『에마(Emma)』, 제인 오스틴 -

<b>POWER INTERVIEW</b>	04
이강일(법무법인 창경)	
<b>HOT ISSUE</b>	08
<b>HAPPY LAWSCHOOL</b>	10
이현지(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BOOK</b>	13
<b>CONTEST</b>	14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b>REAL STORY</b>	20
류형주(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솔지(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준호(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시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LAW FIRM TOUR</b>	30
법무법인(유) 올촌	
<b>SPECIAL REPORT</b>	36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과제	
미국로스쿨협회의 연례총회 참관기	
<b>LETTER FROM</b>	44
홍영기(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도희(법률사무소 앵커)	
<b>OPINION</b>	48
안경준(세계일보)	
<b>HEALTH MENTORING</b>	50
명우재(분당서울대학교병원)	
<b>MOVIE TALK TALK</b>	52
고봉주(리암법률사무소)	
<b>AKLS NEWS</b>	54
<b>OUT CAMPUS</b>	56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akls.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 인터뷰 내용 등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3월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행인** 홍대식  
**편집인** 이탁건  
**편집·진행** 홍보팀(박소희, 여세린)  
**등록번호** 2289-0262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02-752-2037)  
**디자인** ㈜그리고나무(02-2268-2592)  
**인쇄** ㈜빅북프렌즈



본 매거진의 모든 내용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반드시 출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명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CC BY 4.0

그의 이력서에는 교과 성적 대신 흠냄새 나는 시간이 먼저 적힌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농장에서 사과나무를 돌보고, 중장비를 몰며, 도축과 인테리어 현장을 오가며 배운 세상. 검정고시와 방송통신대학교 진학으로 이어진 비정형적인 삶의 경로는, 그를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조인으로 성장시켰다.

“초졸도 마음먹으면 변호사 될 수 있습니다.”



**이강일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Q.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소개해 주세요.**

**A.** 저는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 형·누나들과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IMF 이후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부모님은 교육 면에서는 굉장히 깨어 계신 분들이셨어요.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학교는 전교생이 40~50명 남짓한 작은 시골 학교였는데요. 친구들은 학원에 다녔지만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았고, 초등학교 때 이미 수백 권의 책을 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책을 많이 읽어 주기도 하셨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기의 독서와 자연 속에서의 생활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어도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만들어 준 기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A.** 배치고사까지 보고 중학교 배정도 받아둔 상태였지만, 겨울방학 내내 가족과 긴 논의 끝에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형·누나도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급식비가 밀릴 정도로요. 다행히 지역사회 도움 받아 형들과 누나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교육자이셨기에 기존의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도 컸습니다. 형과 누나가 서울대를 목표로 온종일 문제집과 단어장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 방식이 과연 모두에게 맞는 교육일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막 내인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키워보고 싶다는 가족들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업에서 잠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Q. 중학교 진학 대신 본격적으로 뛰어난 노동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나요?**

**A.** 사실 그동안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경제적인 면만 부각되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강제 노동을 한 것처럼 비쳐졌는데요.(웃음) 그런 건 아니고요. 앞선 답변에서처럼 다양한 경험을 일찍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농사였어요. 과수 농사로 사과 나무를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 밭농사로 옮겨 밭, 고구마, 옥수수 등을 재배했고, 이후에는 약초 농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농장에서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처음 접하면서 익혔습니다. 트랙터 같은 농기계도 몰았는데, 후에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농장을 옮겨 다니며 인테리어 일을 하기도 했고, 프로젝트 단위로 짧게 일한 뒤 다시 농장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도축, 오리 납품 같은 일도 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12살부터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Q. 그 시기의 경험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A.**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몸으로 세상을 배우던 시간이었습니다. 책으로는 알 수 없는 현장의 공기,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협력, 어른들 틈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눈칫밥을 먹으며 구른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사람을 대하는 법,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일찍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검정고시와 방송통신대 진학은 언제쯤 이뤄졌나요?**

**A.** 제가 한국 나이로 14살, 중학교 1학년 쯤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농장에 들어가



2010년 굴삭기 정화조 작업 현장의 모습



이동형 원장과 함께 영남대 로스쿨 학위수여식에서

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큰형이 당시 의대에 다니고 있어서, 공부 쪽에서는 동생들을 다 이끌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형·누나들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막내인 제가 계속 농장에만 있는 걸 보고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때부터 잔소리가 시작돼서 결국 그해 겨울에 공부해서 이듬해 4월에 중졸 검정고시를 보고, 이어서 8월에 고졸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농사지으면서 급하게 준비한 거라 두세 달 정도밖에 공부를 못 했는데, 다행히 운 좋게 붙었어요. 9월쯤 합격 소식을 듣고 나니까 형이 바로 “경험 삼아서라도 수능도 한 번 보라”고 해서 11월에 수능을 봤습니다. 저는 대학에 큰 미련은 없었지만 “그럼 방송대라도 넣어 보라”는 형의 권유에 따라 영어영문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 2년 만에 대학생이 된 거죠.(웃음)

**Q. 이런 삶의 경로 속에서 법조인의 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A.**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면서 헌병, 군사경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수사 업무를 하다 보니 법무관들도 자주 접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까이서 보게 됐습니다. 제대 이후 어떤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법을 한 번 제대로 공부해 보면 좋겠다”고 강하게 권하셨어요. 추천해 줄 만한 분야가 있다면서요. 그때 처음으로 ‘아, 그럼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

게 됐습니다.

**Q.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했던 지점은 무엇이었나요?**

**A.** 경제적인 부분을 아예 고민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다만 아주 막막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일을 해왔고, 군 생활을 하면서도 경제 활동을 했잖아요.(웃음) 무엇보다 큰형의 도움이 컸습니다. 진학 준비를 하면서 형네 집에 머물면서 공부했는데, 형이 점심·저녁 도시락까지 직접 싸주면서 도서관에 보내줬어요. 리트 책도 많이 사줘서 다 풀었고, 영남대 로스쿨도 형이 먼저 추천해 줬습니다. 다행히 리트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소득 분위가 3분위라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받았고, 생활비 대출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현실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형 의대 다닐 때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온 셈이죠.(웃음)

**Q. 로스쿨에서의 3년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A.**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학기 성적이 70명 중 65등이었거든요. ‘이게 뭐지?’ 싶었죠. 게다가 오랜 노동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루에 두세 시간 이상 앉아 있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동기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고, 무엇보다 교수님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아온 동기들 사이에서 삽질(?)하다가 온 저를 붙들고 많이 가르쳐주셨거든요.(웃음) 지금 생각해도 동기들과 교수님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Q. 현재는 어떤 분야의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A.** 기업 업무,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사장님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고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게 돕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같이 현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야, 옛날에 땅 파던 이강일이 변호사가 됐대” 하면서 사건 하나 맡겨주실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상법 박사 과정에도 합격해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Q. 요즘 이강일 변호사님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원래 작은 일에서도 소소한 기쁨을 잘 느끼는 편입니다. 하루가 무사히 흘러간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바쁜 일정 사이에 잠깐 숨 돌릴 수 있는 순간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형, 누나들과 함께 연주하는 시간도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네 명이 사중주를 맞춰서 연습하고, 부모님 생신 때는 합주 영상을 찍어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참 즐겁습니다. 연주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고, 서로의 시간을 나누게 되거든요. 요즘엔 점도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많다는 게, 지금의 제 소확행인 것 같습니다.

“로스쿨은 소득 분위에 따른 등록금 전액 장학금, 생활비 지급, 학교별 장학 제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도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초졸(초등학교 졸업 학력)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제 사례를 보시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웃음)”

**Q. 학력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로스쿨은 어떤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A.** 로스쿨 진학을 학력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면, 지방대 출신이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점은 생각보다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로스쿨은 개인이 모든 걸 알아서 헤쳐 나가야 했던 과거의 사법시험과 달리,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교수님들과 학교가 학습의 방향을 함께 제시해 주거든요. 무엇보다 로스쿨은 끝이 보이지 않는 수험 생활과 달리, 3년이라는 분명한 시간표가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구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부를 이어가는 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니까요. 또한 소득 분위에 따른 등록금 전액 장학금·생활비 지급, 학교별 장학 제도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도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원하는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Q. 변호사로서 그리고 있는 목표나, 되고 싶은 법조인의 모습이 있다면요?**

**A.** 저는 일반적인 변호사들이 걸어온 삶의 궤적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만이 좀 더 알아들

을 수 있는 사회 각층의 언어와 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법으로 그분들을 지지해 주고, 그분들의 삶의 궤적을 떠받쳐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변호사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변화에 빠르게 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놓치지 않고 도와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법조인의 길을 꿈꾸지만 여러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요즘 세상에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최종 목표는 아닐지라도, 그 꿈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쟁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꿈이든 도전해 볼 가치는 충분하며, 해보다가 생각과 다르다면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정말로 바라는 꿈이고 길이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제 삶의 궤적이 그 살아있는 증거이자 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졸(초등학교 졸업 학력)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제 사례를 보시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웃음)

issue 0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시행...출원자 3,757명

제15회 변호사시험이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에서 실시됐다. 시험은 나흘간 진행됐으며, 1월 8일은 휴식일로 운영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시험 출원자는 총 3,757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3,763명)보다 6명 감소했다. CBT(Computer Based Test) 도입 3년째를 맞은 올해 시험에서는 전체 출원자의 99.89%에 해당하는 3,753명이 컴퓨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했으며, 수기 응시자는 4명에 그쳤다. 합격자 발표는 4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현장 [제공=로스쿨타임즈]

issue 04

헌법재판소에 선 예비 법조인들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이 2월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은 연세대 로스쿨 '헌니버터칩'팀이 차지했으며, 우수변론상은 같은 팀 박민석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생 60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고, 이 중 8개 팀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변론을 펼쳤다. 2015년 시작된 이 대회는 헌법재판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연세대 로스쿨 '헌니버터칩'팀 [제공=헌법재판소]

issue 02



제5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현장 [제공=국방부]



제5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단체사진 [제공=국방부]

제5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성료, 연세대 '도베르만'팀 국방부장관상

1월 16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제5회 군사법 변론 경연대회' 본선 및 시상식이 개최됐다. 본선에 진출한 전국 로스쿨 10개 팀은 군검사팀과 변호인팀으로 나뉘어 군사법 분야의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심사 결과, 연세대 로스쿨 '도베르만'팀이 최우수상인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은 서울대 로스쿨 '비상'팀이 수상했다.

issue 03

법조윤리시험, 8월 1일 시행

2026년도 제17회 법조윤리시험이 오는 8월 1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2월 13일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이번 시험을 법조윤리 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격자는 9월 10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응시자는 법조윤리 과목 이수 사실을 별도로 소명해야 하고, 장애 등으로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issue 05

코트 위에서 빛난 팀워크,

서울대 로스쿨 농구부 '앤드윈', 전국 로스쿨 농구대회 우승

1월 24일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로스쿨 농구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로스쿨 농구부 '앤드윈'이 우승을 차지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정상에 오른 앤드윈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온 시간의 결실을 코트 위에서 증명했다. 앤드윈은 "대회를 성사시키고 우승까지 거머쥐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며 "대부분의 팀원이 득점에 성공하는 등 전 부원이 고르게 활약해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역시 "바쁜 학업 일정 속에서도 체육 활동에 대한 열정을 이어온 학생들의 노력이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대 로스쿨 농구부 '앤드윈'팀 [제공=서울대 로스쿨]

issue 06



서강대 로스쿨 학위수여식 [제공=로스쿨타임즈]



인하대 로스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제공=인하대 로스쿨]

법조인으로 새 출발하는 로스쿨 학위수여식

지난 2월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학위수여식에는 로스쿨 원장과 교수진, 해당 대학의 총장, 선배 법조인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앞날을 응원했다. 졸업생들은 그동안 학업을 함께 응원해 준 가족, 지인들과 졸업의 영광을 나누며 법조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한편, 각 로스쿨은 신입생을 환영하는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도 개최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법학의 길로 들어선 한양대 로스쿨 17기 이현지 학생은 판례 검색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검색기를 개발했다. 기술과 법이라는 서로 다른 언어 사이에서, 그는 두 세계를 잇는 자신만의 방식을 설계해가고 있다.

## 공학도에서 로스쿨생으로... 이현지의 두 개의 언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기



이  
현  
지

**Q. 본인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A.** “법률이 좋고, 컴퓨터가 좋다.” 로스쿨 학생으로서 프로그램 개발기를 기록하며 브런치 작가 소개란에 적었던 문장입니다. 공부할 때도, 휴식하며 타인과 소통할 때도 늘 컴퓨터와 함께하는 저의 일상을 가장 명료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학부 시절에는 어떤 전공을 공부했고, 그 시절의 본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A.**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했는데, 제가 설계한 대로 컴퓨터가 작동하는 과정을 보며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쪽지시험 공부를 돕기 위한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후배들에게까지 전해져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학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Q.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학부 시절 지식재산권 부전공 과정을 이수하면서, 기술이 사회에 정착해 가치

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법학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법이라는 도구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고민 끝에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 로스쿨에 입학한 뒤 지난 1년은 어떻게 흘러갔나요?**

**A.** 새로운 분야에 적응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웃음) 명확한 정답을 도출하는 공학적 시험 방식에 익숙했던 터라, 다양한 견해를 검토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쌓아 올려야 하는 법학 답안 구성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고민했던 한 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부 외적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자 했습니다. AI와 법 학회에 참여해 기술과 법의 접점을 탐구했고, 공익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통해 법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는지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 직접 ‘케이스노트 검색기’를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었나요?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까지의 과정도 궁금합니다.**

**A.** 방대한 법령과 판례를 수시로 검색해야 하는 로스쿨 생활을 하다 보니, 매번 검색



크롬 웹스토어에 소개된 ‘케이스노트(CaseNote) 검색기’

창을 새로 열어 입력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웹페이지 내 조문이나 판례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즉시 검색 결과로 연결해 주는 기능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뒤에는 이를 빠르게 구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코드 작성은 AI의 도움을 받고, 저는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을 설계하고 사용자 경험을 세밀하게 다듬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Q.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A.** 편의성과 안정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은 웹 생태계에 간섭하는 도구인 만큼, 검색 대상인 케이스노트 서비스의 서버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포 전에는 케이스노트 본사의 공식 허가

를 받는 절차를 거쳤고, 사용자 데이터 접근 권한 역시 기능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Q. 케이스노트 검색기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A.** 크롬 웹스토어에서 ‘케이스노트 검색기’라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판례번호에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케이스노트 검색 결과창이 바로 뜨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Q. 공대에서 익힌 사고방식이 법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반대로 한계를 느낀 적도 있었나요?**

**A.** 민사소송법처럼 소송의 진행 단계마다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절차법을 공부할 때 공학적인 사고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송의 전체 흐름을 논리적인 선후 관계에 따라 구조화해 바라보니, 복잡하게 얽힌 쟁점들 사이에서도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정해진 식에 따라 일정한 값이 도출

되는 공학의 세계와 달리 법학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학설과 판례가 치열하게 대립하며 최선의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유연함이 다소 낯설고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정교한 논리 체계라는 점을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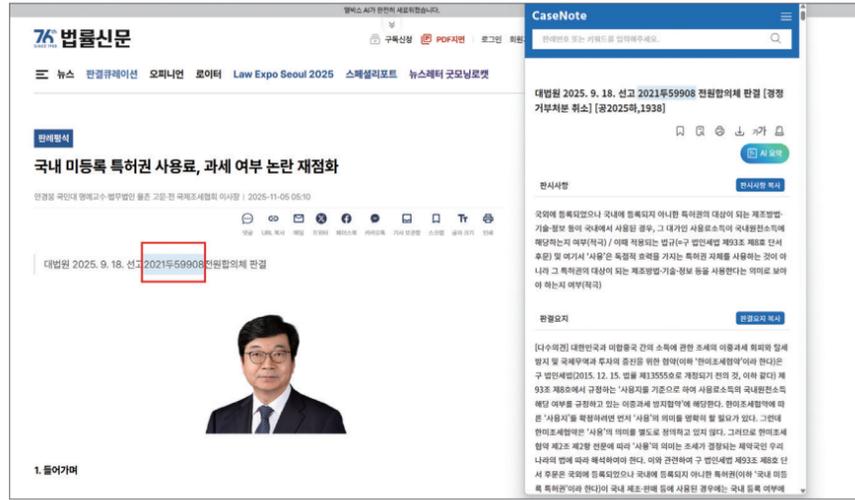
**Q. 로스쿨 입학 후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A.** 개발한 프로그램의 배포 승인을 케이스노트 본사로부터 받았던 순간입니다. 로스쿨에 오면서 ‘학부 4년 동안 공부한 것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늘 마음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제로 동기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으로부터도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을 겪으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를 완성했다는 성취감을 넘어, ‘법학만 공부한 사람도, 개발만 하는 사람도 아닌 저였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을 해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Q. 현지님의 하루는 어떻게 채워지나요? 공부와 휴식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도 궁금합니다.**

**A.** 로스쿨에 입학한 뒤 시간표를 짜고 계획적인 생활을 여러 번 시도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은 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웃음) 대신 ‘오늘 이것만큼은 반드시 끝내자’는 목표를 중심에 두는 유연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공부는 강의 전후로 복습과 과제를 제때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용 예시) 법률신문의 판례평석 웹페이지에서 케이스노트 활용

개발 아이디어나 개선점이 떠오르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해 두고, 공부를 모두 마친 뒤나 주말처럼 여유 있는 시간에 한꺼번에 구현합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학업의 긴장을 내려놓고, 다음 한 주를 위한 에너지를 채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Q. 법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법학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모든 일에 명확한 ‘정답’과 ‘오답’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학을 공부하며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모두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상황과 가치에 따라 여러 해석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인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행동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Q. 졸업 후에는 어떤 분야의 법조인이 되고 싶나요?**

**A.** 단기적으로는 리걸테크 분야에서 기술

과 법을 잇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IT 기술이 빠르게 법조계에 스며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술의 언어와 법의 언어가 달라 소통의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산학 전공자로서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로스쿨에서 다진 법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그 간극을 메우는 ‘기술과 법의 통역사’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은 더 이상 현실과 분리된 가상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녹아 있는 영역입니다. 기술적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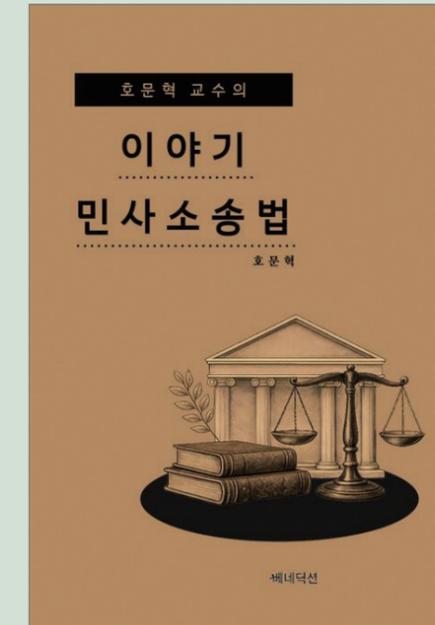
**Q. 비법학 전공자로서 로스쿨에 입학한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로스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시너지를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이 다르다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강점을 하나 더 가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과정을 헤쳐 나가는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민사소송법**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민사소송법 이야기

권리는 알고 있지만 소송은 낯선 이들을 위한 안내서가 나왔다.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이야기 민사소송법』은 어렵기로 유명한 민사소송 절차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다. 이준풍과 김선달이라는 친숙한 인물들이 겪는 사건을 따라가며,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제출, 증거 준비와 각각까지 전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33개의 에피소드마다 ‘용어 알기’와 ‘핵심 알기’로 개념을 정리하고, 도표와 실제 서식 예시를 실어 실용성도 높였다.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저	자	호문혁
출	판	사 베네딕션



**마일리지 아워(Mileage Hour)**  
“시간을 다르게 쓰는 사람이 결국 다르게 산다”

드라마 ‘굿파트너’로 주목받은 최유나 변호사가 신간 『마일리지 아워』를 펴냈다. 14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태성 대표, 두 아이의 엄마이자 드라마 작가로 살아온 그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깨달음에서 출발해 자신만의 시간 관리법을 제안한다. 시간을 자산처럼 적립하는 ‘마일리지 아워’ 시스템은 주도적 태도와 깊은 집중, 꾸준함이 결국 인생의 격차를 만든다고 말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시간의 주인이 되는 법을 전하는 자기계발서다.

저	자	이유나
출	판	사 북로망스

# 변론 기량 겨루는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열려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올해로 17회를 맞았다. 지난 1월 2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자신과 모교의 명예를 걸고 펼친 치열한 변론 끝에 서울대 로스쿨팀과 성균관대 로스쿨팀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이 진행중인 법정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시상식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실제 재판과 유사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되며,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 역량과 법조 전문성을 겨루는 국내 최고 권위의 변론 경연 무대로 평가받는다. 대회는 민사·형사 두 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검사 또는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 역할을 맡아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펼친다.

민사부문 결선에서는 △계속적 계약 취소의 장래효 △채권가압류 후 기초적 계약관계의 처분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형사부문 결선에서는 △어린이집 수면분리 조치 및 욕설의 아동학대 해당 여부 △녹음기로 수집한 음성파일의 증거능력 △보조금 자료 폐기의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축사를 하고 있는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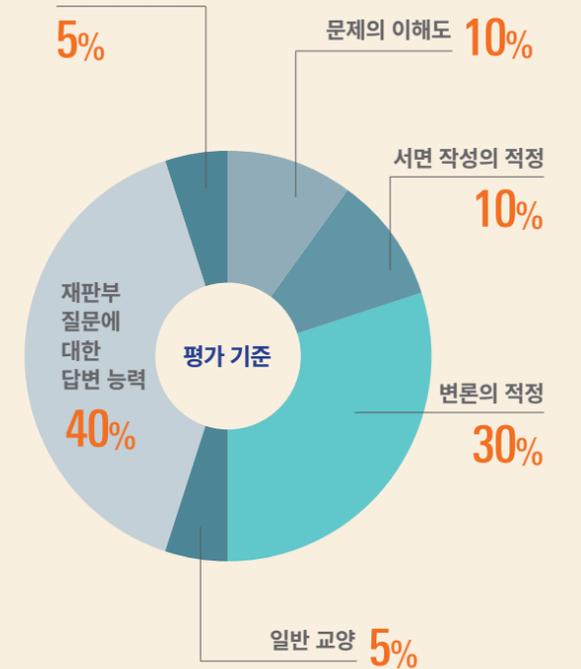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올바른 재판은 모든 법조인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며 “단순한 승패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지켜 나가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조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법조인이 지켜야 할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는 진실 추구하고 절차적 정당성, 정의와 공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라며 “이번 대회가 법조인의 소명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 본·결선 대회 흐름도

	본선	결선
재판부: 사건 호명, 참가자 확인, 사건개요 등	5분	5분
쟁점 정리 및 주변론	15분	20분
재변론	10분	10분
재판부 질의	10분	20분
정리변론 및 변론종결	5분	5분

### ■ 법정태도의 적정



### ■ 수상결과

구분	민사	형사
1위	서울대(오은결·이동은·정연우)	성균관대(권현지·정예원·김윤지)
2위	성균관대(양원영·김보민·서지원)	한양대(장주원·김지은·박태함)
3위	서울대(김도윤·정유진·윤여중)	원광대(나윤정·박소현·조성환)
4위	서강대(남건희·이재문·김은수)	연세대(김아진·김소람·심영서)

※ 개인 최우수변론상 : 서울대 이동은(민사), 성균관대 정예원(형사)

##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우승팀

인터뷰. 여세린

민사부문 우승 서울대팀 (왼쪽부터) 이동은·오은결·정연우



형사부문 우승 성균관대팀 (왼쪽부터) 정예원·권현지·김윤지



**Q. 가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대회에 출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민사팀:** 로스쿨에서 배운 법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다루어지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서면 작성부터 변론 준비, 재판부 질의응답까지 실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무 환경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양질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로스쿨생들과 함께 겨루며 스스로의 강점과 한계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을 느꼈습니다.

**형사팀:** 로스쿨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회 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대회이니 그 자체로 좋은 경험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게 되어도 대부분 서면 제출로 주장이 이루어지고 말로 변론할 기회는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스쿨 입학 전 꿈꾸던 변호사의 모습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Q. 민사, 형사를 선택한 기준은 무엇인가?**

**민사팀:** 로스쿨에서의 첫 해에는 민사법을 집중적으로 배우므로 가장 친숙한 법이었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틀로 두고 있는 법영역인 만큼 논리 구성의 자유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민사 부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계속적 계약 취소의 장래효', '채권가압류 후 기초적 계약관계의 처분' 등 쟁점을 마주하였을 때,

민사법의 자율성에서 출발해 기존 법리를 옹호·파훼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형사팀:** 로스쿨 2학년 2학기는 '형사법 학기'라고 부를 정도로 형사재판실무, 검찰 실무 과목 등 커리큘럼이 형법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간을 쏟기도 했고 친숙하기도 한 형사 부문으로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Q. 예선(서면심사)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효과적인 준비 방법을 공유해주세요.**

**민사팀:** 초반 2~3일 정도는 출제의 모티프 판례를 찾고, 쟁점을 정리하여 서면의 일개를 짜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나머지 4~5일동안은 쟁점과 원/피고를 기준으로 분량을 나누어 서면을 작성하고 함께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신이 직접 작성한 부분에서는 누락된 쟁점이 잘 보이지 않으니, 서로가 작성한 서면을 여러 번 돌려 읽으며 쟁점누락을 최소화하고 논리를 두텁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사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강간, 위증의 점에 관하여 주어진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고, 출제의 배경이 된 하급심 판례를 찾아 주요한 쟁점에 관해 빠짐없이 논증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문제에 주어지는 변호인 측 주장은 누락 없이 모두 서면에 포함시키되, 그 밖에 추가적으로 주장 또는 반박할 수 있는 바를 찾아내는 것이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별화에 도움이 되는 듯합니다.

**Q. 본, 결선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변론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민사팀:** 변론의 경우 한정된 시간 내에 본인 서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압축적으로 전달하여야 하고 상대방 서면 내용에 대



민사부문 결선 모습

한 반박 역시 포함하여야 하는 만큼, 길잡이가 될 스크립트를 만들어 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결선의 경우 새로운 사실관계 및 쟁점이 추가되는 만큼, 결선 변론 직전 준비시간으로 주어지는 45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팀원 2명은 기존 출제부분에 대한 변론을 보강·완성하고, 나머지 1명은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변론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형사팀:** 본선에서 대법원 판례를 특히 집착적으로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법리가 있다면 사안이 해당 법리에 포섭되지 않도록 하는 논리를 고안해내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결선 단계에서는 문제에 주어진 사실관계와 법전, 그리고 형법 총론 및 각론 교과서 외에는 어떠한 참고자료도 없이, 45분의 짧은 시간 내에 쟁점을 파악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고안해야 했습니다. 본선에서 검사 측을 맡았던 것과 달리 결선에서는 변호인 측을 맡게 되어 반전된 스탠스에 맞는 쟁점정리, 주변론, 재변론을 준비하는 한편,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변

론 또한 시간 내에 준비해내기 위해 역할 분담과 신속한 쟁점정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민사팀:** 아직 교과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을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세권(결선에서 추가된 사실관계), 지상권(예선)과 같은 부분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했기에 생소한 개념을 단기간에 파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에서 적절한 논리가 떠오르지 않을 때, 외부의 도움 없이 오롯이 팀의 힘만으로 결론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논리를 세우고 반박을 거쳐 정교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능한 한 설득력 있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는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형사팀:** 끊임없이 대법원 판례에 '도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판례의 문언을 '성서'처럼 읽게 되는 로스쿨 생활 가운데, 대법원 판례를 넘어다녀야 하는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CONTEST



형사부문 결선 모습

그러나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소화해온 시간을 발판 삼아, 감히 입체적이고 도전적인 고민들에 파문해보는 경험은 어려운 그 이상으로 즐겁고 보람찼습니다.

**Q. 대회 출전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민사팀:** 작은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판례의 결론을 위주로 암기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기록의 무게를 체감했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어떤 법리를 동원하는지가 아니라, 흠어진 사실들을 얼마나 치밀하게 엮어 하나의 서사로 만들어내는지에 달려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본·결선 중 재판부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록 너머를 고민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수치나 결과로 정리된 사실관계 이면에 어떠한 사정이 있을지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면서, 법률가로서 누군가를 대변한다는 것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은 당사자의 삶과 맥락을 이해하고 사건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기도 함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형사팀:** 대회를 준비하면서 아직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독자적인 해석이 필요하거나, 일견 대법원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해야 하는 경우들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논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하급심 판결들을 찾아보았는데, 대법원과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모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는 하급심 판결이 더 납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한 특강에서 소송실무를 담당하는 법조인으로서 판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대회를 치르며 그 말의 의미를 몸소 체감하였습니다. 판례의 입장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고 얼마든지 도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검사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하여,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법리 적용을 통해 그것을 해내는 것이 법률가의 역할임을 느꼈습니다.

**Q.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민사팀:** 논리 흐름을 대폭 수정하거나 작

성한 서면을 과감히 엮고 다시 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 역시 예선과 본선 모두 논리의 틀을 처음부터 다시 짠 쟁점들이 있었고, 논증 방식을 자잘하게 바꾼 일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미 세워둔 논리에 의문이 든다면, 그 의문은 현재 논증의 공백을 드러내는 유의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판단이 든다면 과감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결국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팀워크를 단단히 다질수록, 길고 지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더 즐겁고 더 뜻깊은 경험으로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적절한 비판을 통해 팀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서면과 변론의 완성도를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팀원 모두가 함께 치열한 과정을 완수했다는 보람차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형사팀:** 예선과 본결선 문제에서 원형이 된 판례를 찾아낸다면 서면 작성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물론 판례를 찾지 못하더라도 쟁점을 잘 추출하고 논리를 구성한다면 문제없으나, 서면 작성에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다양한 리서치 수단을 동원하여 출제의 모티브가 된 판례를 찾아내길 추천 드립니다.

또한, 한 사람이 서면을 도맡아 작성하기 보다는 회의를 통해 쟁점을 정리한 뒤에 각자 변론요지서와 검사의견서에서 서로 다른 파트를 맡아 작성하고,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면을 수정해 갔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전체적인 문체와 형식의 통일성을 맞추는데 품은 더 들지만, 각 공소사실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과 논거를 모두 숙지하게 되면서 본결선 대비와 교차검증의 측면에서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 제3회

# 로스쿨 & 변호사시험

# 수기 공모전

나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한다.

**접수 일정**

**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2026년 5월 17일(일)

**발표** 2026년 6월 중

**시상** 2026년 8월 중

**응모 방법**

**분량** A4 5매 내외, 글씨크기 11포인트

**형식** 아래아한글 파일

**제출** 이메일 lawta@akls.kr

**시상 내역**

**대상** 1명, 상금 200만원 및 상장

**최우수상** 각 부문 1명, 상금 150만원

**우수상** 각 부문 1명, 상금 100만원

**장려상** 각 부문 2명, 상금 50만원

**문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02-752-2036~2037

**AKLS**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

## 공대생 로스쿨 합격 수기



류형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8기

### 1. 여는 말

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건설 부문에서 1년간 설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법조인의 꿈을 품고 직장 생활과 수험을 병행한 끝에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엔 주류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학부 시절 전공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해 두 번의 학사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이수하는 법학 이중 전공이나 관련 학점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로스쿨은 정해진 길을 걸어온 분들에게만 열려 있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전공과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 덕분인지 공학도이자 직장인으로서 쌓아온 저의 투박한 경험들도 긍정적으로 봐주셨던 게 아닐지 생각합니다.

거창한 공부법을 소개하기엔 능력이 부족하여 민망합니다만 로스쿨 문외한으로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이 수기가 나만의 특색으로도 통할 수 있다는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 2. 리트 준비

공부보다는 실전 위주의 연습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연습이 법학적성시험에서는 효율이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펜 한 자루만 챙기고 시험을 치를 만큼 무던한 편이나 리트 준비 과정만큼은 할 수 있는 한 예민하게 환경을 통제했습니다.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모의고사를 풀 수는 없었지만, 항상 손목시계를 8시 40분으로 맞추고 20분간 침묵하며 대기하다 정각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편의점에 들러 제로 콜라 한 캔을 마시고 냉수로 세안을 한 뒤 자리에 돌아오는 루틴까지 똑같이 반복하는 등 유난스러운 연습을 지속했습니다.

이 과정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도 연습인 탓 혹은

환경 탓을 하는 자기합리화를 막아 실력을 직시할 수 있었고 둘째로 시험 운용의 감각을 직관적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보통 지문당 시간을 계산하다 보면 “지금 9시 28분이니까...” 하며 몇 개의 지문을 풀었는지 셈을 하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고정된 시침과 분침으로 연습하다 보니 불필요한 계산과 초조함 없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3. 자기소개서와 면접

자기소개서는 나름의 소신으로 작성했습니다. “단순 나열식을 피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작성하라”는 격언 같은 조언을 참고하되, 이를 절대적인 지침처럼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일례로 인하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 중 <성적증명서를 분석하여 학업성취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발문이 성취의 ‘과정’보다는 ‘성취의 정도’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정 위주로 서술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다소 나열식으로 보이더라도 유의미한 성취 기재를 우선순위에 두고 밀도 있게 기술했습니다. 세간의 작성 공식들은 학교가 묻고자 하는 의도를 고민한 후에 활용해야지, 지침처럼 수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스터디를 통한 실전 연습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타 지원자들의 답변을 들으며 논리 전개 방식을 서로 회고하는 것은 좋았으나, 정형화된 ‘만능 답변’을 만드는 순간 사고의 폭이 제한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흔히 쓰이는 법적 안정성, 침해의 최소성, 대안 가능성 같은 논거의 표제들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지문을 마주한 순간의 사고 과정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풀어내어 현장감 있는 답변의 인상을 가져가려 노력했습니다.

### 4. 마치며

직장 병행 수험이기에 심적 부담이 덜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험생활을 병행하는 직장인으로서의 업무 몰입도와 커리어 관리, 나아가 사회생활의 일정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욕심을 부리느라 정작 현업에서는 제 몫을 다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기에, 합격의 기쁨과는 별개로 동료들에게 빚진 마음이 한구석에 남아있었습니다.

1년 차 사원이라 업무 강도가 얕음에도 이 과정이 평탄하지 않았는데 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도전하시는 모든 직장인 수험생분께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합격이라는 결과는 훌륭한 지원자들 속에서도 학교가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택해 주신 학교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책임감으로 정진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연구원 비대면 실무수습 후기

- 헌법이라는  
'기본 언어'를  
다시 배우는 시간



안솔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기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필자는 금융협회에서 금융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법이 산업과 사회를 어떻게 설계하고 작동시키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규제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통해 사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하나의 언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영역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법조인의 길로 이어졌고, 로스쿨 재학 중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여러 형태의 실무수습을 경험해 왔다.

피터앤김, 지평 등 국내 로펌과 법무부 주관의 '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한 홍콩 로펌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무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무 경험이 쌓일수록, 개별 사건과 산업을 넘어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도 함께 커졌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참여하게 된 것이 헌법재판연구원이 주관한 비대면 실무수습이었다.

### 헌법소송의 구조를 '이론'이 아닌 '실무'로 체득하다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은 헌법과 헌법소송의 기본 구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실제 헌법재판 실무의 흐름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심판 절차, 헌법소원의 유형별 구조, 심판대상의 특징과 심사기준에 이르기까지, 개별 강의는 모두 실제 사건을 전제로 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구별, 심판대상과 자기관련성·현재성·보충성 판단 과정은 기존의 교과서적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구서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라는 실천적 관점에서 다뤄졌다. 헌법재판이 단순



히 추상적 규범 통제가 아니라, 구체적 사건과 개인의 권리구제 요청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 청구서 작성과 연구보고서 과제를 통해 체득한 헌법 실무

이번 실무수습의 핵심은 단연 청구서 작성과 연구보고서 과제였다. 개인 과제로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심판 청구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마') 심판 보정서 작성 연습이 주어졌고, 팀 과제로는 특정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다. 단순한 요약이나 판례 정리가 아니라, 쟁점을 재구성하고 합헌·위헌 논리를 각각 설득력 있게 전개해야 하는 과제였다.

청구서 작성 과정에서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에 관한 합헌 결정의 논리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가 갖는 헌법적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었다.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심사 기준을 실제 청구서 문장 속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주장을 얼마나 절제된 언어로 구조화하느냐가 설득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실감했다. 이는 그동안

로펌 실무수습에서 접해 온 민사 소송 서면이나 자문 의견서와는 또 다른 긴장감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팀별 연구보고서 과제 역시 헌법재판의 사고방식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 중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며, 동일한 제도를 두고도 합헌과 위헌의 논리가 어떻게 달리 구성될 수 있는지를 경험했다. 토론 과정에서 동료 수습생들의 다양한 시각을 접하며, 헌법재판은 정해진 답을 찾는 작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와 관점을 조정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실감했다.

**헌법을 ‘공부하는 과목’에서 ‘작동하는 규범’으로**

헌법재판연구원에서의 실무수습은, 필자로 하여금 헌법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마주하게 한 시간이었다. 2주간의 수습 과정을 통해 헌법이 단지 시험을 위한 과목이거나 선언적 가치의 집합이 아니라, 실제 분쟁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해석되고 적용되

는 살아 있는 규범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헌법소송의 절차와 논증 구조를 따라가며, 헌법이 개별 사건의 해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무의 맥락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금융 규제와 로펌 실무수습을 경험하며 쌓아온 문제의식 역시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헌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층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산업과 시장을 규율하는 규제 또한 그 정당성과 한계는 결국 헌법적 가치와 원칙 위에서 점

검된다는 점에서, 헌법은 개별법 영역 가운데 하나라기보다, 법률가가 문제를 사고할 때 가장 먼저 참조하게 되는 기본 언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법률가에게 일종의 ‘모국어’와도 같은 언어이며, 이번 실무수습은 무심코 사용해 오던 그 기본 언어를, 실무의 맥락에서 의식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로스쿨생에게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신의 문제의식을 법질서의 근본과 연결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헌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헌법재판 실무의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이 실무수습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 녹색법률센터 실무수습기



노준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기

**I. 녹색법률센터 실무수습에 지원한 계기**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며 복잡한 환경 이슈를 과학의 언어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왔습니다. 도시 물순환, 생활화학제품 독성 평가, 배터리 폐수 처리 등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며 환경 문제를 계량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역량을 키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정책이 설계되고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과학적 해결책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환경 문제가 단순히 기술적 해법만으로 종결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책임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법과 규범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과학적 사실조차 규범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가치 판단이 수반되어야 함을 인식했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논리가 정책과 제도 안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구체화되는지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후에는 공학적 배경지식을 토대로, 환경 분쟁과 정책이 실제 법률 실무에서 어떤 논리와 절차를 거쳐 정리되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현장성 있는 환경 의제들을 다루는 곳인 만큼, 이론으로 배운 법리가 실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험하고,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II. 실무수습 진행 방식**

이번 실무수습은 2주간의 일정으로, 환경 관련 핵심 법리와 분쟁 사례를 다루는 강의 및 실무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 및 상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번 동계 실무수습은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 단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공학적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과, 그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책임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작업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공에서 익힌 분석적 사고가 법적 논증의 틀 안에서 어떻게 정교화될 수 있는지 고민해본 시간은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환경 소송의 실무적 쟁점부터 기후 위기 대응 법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변호사의 소속 로펌과 센터 사무실에서 강의가 진행되어 실제 업무 환경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한 설명과 토론 덕분에, 환경 법률 실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생하게 체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III. 인상 깊은 내용과 배움

학부에서 통합환경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공부하며 제도의 설계와 정책적 기능에 주목해왔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은 당시 교과서로 접했던 제도들이 실제 분쟁과 소송의 장에서 어떠한 법적 쟁점으로 치환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과학적 불확실성이 큰 환경 분쟁에서 법적 책임이 규명되는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공학적 관점에서는 유해 물질과 질환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를 데이터로 증명하는 데 주력하지만, 법의 영역에서는 이를 「가습기 살균제피해구제법」 제5조와 같은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으로 연결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노출 사실과 상관관계가 증명되면 피해 발생을 추정하고 사업자에게 반증 책임을 부여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구조를 접하며, 과학적 사실이 규

법적 판단의 틀 안에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마389 등)을 중심으로 헌법 제 35조 환경권과 과소입법금지원칙을 검토하며, 환경 규범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학습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접하며, 환경 분쟁 특유의 정보 비대칭성과 인과관계의 간극을 법률가들이 어떤 논리로 메워나가는지 확인한 것은 큰 배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적 사실과 규범적 판단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 방식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기후소송과 ESG 규율의 확산을 통해 환경 문제가 공법과 사법, 기업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은 전공에서 익힌 분석적 사고를 법적 논증의 틀 안에서 어떻게 정교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본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사실관계 분석을 규범적 판단으로 연결하는 법적 사고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앞으로 기술적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겸비한 법조인으로서 제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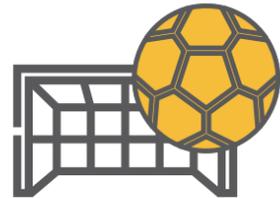
### IV. 마치며

이번 동계 실무수습은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 단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공학적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과, 그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책임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작업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공에서 익힌 분석적 사고가 법적 논증의 틀 안에서 어떻게 정교화될 수 있는지 고민해본 시간은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단순히 정책적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법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구조 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로펌과 센터를 오가며 서로 다른 입장과 논리를 경청하고 실무적인 쟁점을 정리해가는 과정은 강의실 안의 학습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현장의 배움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실효성 있는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고민을 아낌없이 공유해주신 녹색법률센터의 변호사님들과 활동가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습을 통해 얻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실과 규범을 균형 있게 연결하는 법적 사고를 부단히 연마하겠습니다. 사실관계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기술적 전문성과 이를 정밀하게 해석하는 법적 통찰력을 고루 갖춘 법조인이 되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축구부 '로스타임'을 소개합니다!



노시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축구부 '로스타임'의 임원진을 맡고 있는 노시현입니다. 좋은 기회를 통해 저희 동아리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로스타임(Loss time)이란, 흔히 '추가 시간'이라 불리는 시간으로, 경기 중 부상이나 교체 등으로 소요된 시간을 정규 시간 종료 후 심판의 재량으로 덧붙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동아리는 경기 종료 직전인 추가 시간까지 흔들림 없이 경기에 집중하자는 모토 아래, 축구를 사랑하는 원우들이 모여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스타임의 목표는 매해 교내 축구대회인 S리그와 총장배구기대회, 무엇보다 전국로스쿨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2월 말 예정되어 있는 전국로스쿨 축구대회를 앞두고 훈련과 연습경기에 매진하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열정적으로 활동해 온 부원의 입장에서, 저와 동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스쿨생에게 축구가 갖는 의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바쁜 일상 속 정신적·육체적 활력소

저의 경우 학부 시절에는 축구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기에, 몇몇 친구들은 바쁜 로스쿨에 입학한 후에 어쩌다 축구에 정을 붙이게 되었는지 묻곤 합니다. '해보니 재밌다'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쁜 생활 속에서 맑은 정신과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축구는 공부와는 전혀 다른 자극을 생활에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멋진 플레이에 희열을 느끼고, 때로는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 상태에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들을 되새기며 다음 훈련과 경기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힘든 줄도 모르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구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비단 운동장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의 체력과 집중력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 축구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

'축구'라는 공통의 취미와 '우승'이라는 단일한 목표 아래 만난 선배들은 로스쿨 생활에서 얻은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3년이라는 압축적인 과정을 보내야 하는 로스쿨 환경 특성상, 새로운 이들과 깊게 교류할 시간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땀 흘려 운동하고 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더욱 소중한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10월, 전 학년이 모여 촬영하는 로스타임의 졸업사진은 저희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훗날 이 사진을 보며 선배들과 함께했던 1학년 시절을 추억하고, 후배들과 함께한 울해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시간만큼이나, 로스타임 부원들과 교류하며 쌓은 추억 역시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꿈꾸는 모든 분의 3년이 졸업 후에도 따뜻하게 추억될 수 있는 순간들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율촌이 말하는 ‘함께 일할 동료’ 기준은?...

### “협업·책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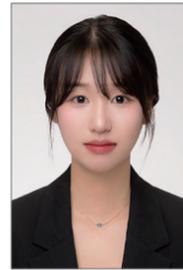
율촌이 말하는 ‘함께 일할 동료’의 기준은 무엇일까.  
대형 로펌의 채용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은 여전히 ‘함께 일해보는 과정’을 중시하는 리크루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율촌의 채용과 인턴십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을 만나, 인재 선발의 기준과 그 철학이 조직문화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들어봤다.



인터뷰이.  
송호성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인터뷰이.  
김건희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인터뷰어.  
송채민 학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Q. 율촌 인턴십이 OJT 중심의 실무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턴십 전반의 구성과 운영 취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다면요?**

**송호성 변호사:** 작년부터 대형로펌들의 신입 변호사 채용 시점이 빨라지면서, 기존처럼 일정 수준의 학습을 전제로 실무 능력과 잠재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서의 인턴십 의미가 다소 약해진 측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율촌이 인턴십과 그룹별 OJT를 계속 유지해 온 이유는, 이를 단순한 평가 절차가 아니라 ‘미래에 함께 일할 후배를 직접 만나보고 선택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와 면접만으로는 실제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유지가 쉽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직접 함께 일해보는 절차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점이 앞당겨진 환경 속에서도, 인턴십 시기를 조절하는 등 최대한 서류·면접만으로 채용하는 방식은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인턴십에서 팀(그룹) 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김건희 변호사:** 지원 단계에서 7개 그룹 중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지망을 하며, 기본적으로는 지원자가 선택한 지망 범위 내에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1순위를 우선 고려하되, 자기소개서와 경력 등



법무법인(유) 율촌 송호성 변호사(왼쪽)와 김건희 변호사(오른쪽)

을 종합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순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원하지 않은 그룹으로 배정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인턴십이나 채용 지원 시 자기소개서에서 특히 눈여겨보는 자질은 무엇인가요?**

**김건희 변호사:**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다 보면,千篇일률적인 템플릿형 글은 금방 드러납니다. 물론 형식은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는 결국 ‘자기를 소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의 언어로 진솔하게 풀어내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지원 동기와 과거 경험, 앞으로의 방

향이 일관된 스토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룹별 채용인 만큼 왜 그 분야를 지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담겨 있는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송호성 변호사:** 대단한 전문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왜 이 분야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자신의 경험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율촌의 해당 그룹에서 어떤 전문성을 쌓고 싶은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보고 싶습니다. 로펌의 수많은 영역 중 어떤 분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왜 이 팀에서 일하고 싶은지, 왜 자신을 뽑아야 하는지를 진솔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포

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어우러질 때, 특정 문장이 튀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파워풀하게 다가오는 자기소개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인턴십 기간 중 OJT에서는 어떤 역량과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나요?**

**송호성 변호사:** 평가 기준은 담당 변호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율촌이 OJT를 유지하는 이유가 향후 함께 일할 동료를 직접 만나보고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리절 마인드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팀 안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구성원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 난감한 상



신입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배정된 팀의 업무를 중심으로  
일하게 되지만,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나누기보다는 같은  
팀이나 인접 팀의 다양한 업무를  
최대한 경험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송호성 변호사

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지를 주로 봅니다. 아울러 율촌이 강조하는 협업과 책임감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Q. 면접에서는 어떤 유형의 질문이 주로 나오고,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나요?**

**송호성 변호사:** 면접에서는 특정 법률 지식의 정답을 맞히는 질문보다는, 서류에서 드러나지 않는 성격과 위기 대처 능력을 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낯설고 예상 밖의 질문을 통해, 긴장된 상황에서도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복탄력성이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와 같은 질문을 자주 던졌던 것 같습니다.

**Q. 인턴십 최종 선발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김건희 변호사:** 인턴십 종류(하계, 동계)와 기수, 시기, 해당 연도의 신입 변호사 채용 수요에 따라 달라 고정된 선발 규모는 없습니다. 그해의 채용 필요 인원과 지원 현황을 종합해 매년 조정하되, 연간 신입 변호사 채용 규모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수시 채용 제도를 병행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요?**

**송호성 변호사:** 수시 채용은 율촌의 전통적인 리크루팅 방식과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대형로펌의 채용 시기가 앞당겨지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이를 외면하기도 어렵습니다. 서류만으로도 만나보고 싶다고 느껴지는 지원자가 있고, 조기 컨펌이 지원자에게 주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채용을 위해 수시 채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비중과 방식은 매해의 채용 환경과 수요에 맞춰 계속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수시 채용을 고려하는 지원자에게, 지원 시점과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면요?**

**김건희 변호사:** 딱 정해진 전략은 없습니다. 로스쿨 재학 3년 동안 원하는 시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으며, 다만 공고 기간은 있으니 이를 제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율촌의 채용 관련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지원 일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TO를 고정해두지 않기 때문에, 이전 지원 이후 성적이나 경험 등에서 의미 있는 업데이트가 있었다면 개선된 내용으로 언제든 다시 지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Q. 입사 이후에도 팀(그룹) 변경이 가능한가요?**

**송호성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지원한 그룹에 소속해 1년간 업무를 합니다. 다만 실제 업무를 해보며 적성과 흥미, 팀과의 호흡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F 그룹에 배정되었지만 소송 업무가 더 적합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 1년 후 그룹 간 로테이션 신청이 가능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그룹 이동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그룹 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Q. 신입 변호사 입사 초기의 업무 루틴은 어떻게 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나요?**

**송호성 변호사:** 신입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배정된 팀의 업무를 중심으로 일하게 되지만,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나누기보다는 같은 팀이나 인접 팀의 다양한 업무를 최대한 경험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르나스 타워 전경

예를 들어 C&F 그룹 안에서도 M&A, 금융 거래, 금융 규제 등 여러 영역의 업무를 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폭넓은 경험을 통해 적성과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김건희 변호사:** 입사 후 약 2주간은 동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업무 시스템과 기본 도구 사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워드, 엑셀 등 실무 도구부터 내부 검색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 타임시트까지 실제 업무에 바로 필요한 기본기를 익히게 됩니다. 이후에도 ‘율촌 아카데미’를 비롯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본 법률과 업무 역량을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입사자들의 연령대, 성별 구성, 전공 배경 등에서 특징이 있나요?**

**송호성 변호사:** 정확한 통계를 낸 것은 아

니지만, 전반적으로 입사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여성 비율도 증가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펌 업무 특성상 다양한 배경과 성향이 모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지원자 풀이 다소 정형화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또, 율촌이 조세나 공정거래 분야에 강점이 있다 보니 관련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가진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배경이 없다고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김건희 변호사:** 학부 전공이나 특정 전문 자격이 채용과 반드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조세를, 경제학 전공이면 공정거래를 지원하는 경향은 있지만, 전공이나 자격과 무관하게 다른 분야를 선택해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전공이나 특정 자격이 지원 그룹과 반드시 연관될 필요는



법무법인(유) 올촌 39층 카페 '여울'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신입 변호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나 복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김건희 변호사:** 이진 저희가 신입 변호사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왔어야 할 질문인데요.(웃음) 제가 신입은 아니라서 무엇이 가장 와닿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타 로펌에 비해 식사 지원이 관대한 편이라는 점은 분명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침·점심·저녁 식사비의 금액만 정해 두고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코엑스 인근이라는 입지 덕분에 선택할 수 있는 식당도 다양합니다. 특히 커피와 샐러드 등을 간단히 아침으로 먹을 수 있다는 점도 많이 언급되는 장점입니다.

**송호성 변호사:** 이외에도 코엑스 내 헬스클럽과 골프 연습장 이용, 보험·상담·자

녀 관련 지원·생일 선물·통신비 지원 등 기본적인 복지 제도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촌의 최대 복지는 39층 카페 '여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객을 모시고 가면 다들 한 번씩 놀라십니다. 강남 일대에서도 뷰가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웃음)

**Q. 올촌이 말하는 인재상은 무엇이며, 그 인재상이 조직문화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나요?**

**김건희 변호사:** 대표변호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올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의 키워드는 '정도(正道)'인 것 같습니다.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탁월한 전문가의 공동체'라는 문구가 사원증 뒤에도 적혀 있는데요. 이윤을 내는 조직이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무엇이 적법하고 윤리적인지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십니다.

**송호성 변호사:** 최근에 이를 실감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고객이 "이전 로펌에서는 괜찮다고 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해당 해석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계속해서 안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혹시 불편하셨을까 염려돼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고객께서 "우리는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 변호사보다, 안 된다고 말해주는 변호사가 필요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때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고, 당장 문제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존심과 자신감, 그것이 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Q. 대표변호사님의 외부 인터뷰에서 '일류 로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송호성 변호사:** 대형 로펌들 가운데 변호사 수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총량으로 1위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부심을 갖는 부분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질입니다. 올촌은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만큼은 타 로펌들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17~18년 동안 큰 부침 없이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으며 성장해 온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 올촌만의 차별화된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는 무엇인가요?**

**김건희 변호사:** 올촌의 일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협업'입니다. 대형 로펌의 업무는 하나의 질의 안에 기업법, 금융 규제, 조세, 공정거래 등 여러 분야가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촌은 고객의 질의를 한 사람이 모두 처리하기보다, 공정거래·조세 등 각 이슈를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배분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합니다. 이 구조는 주니어에게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동료 전문가를 믿고 자신 있게 소통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송호성 변호사:** 겉으로 보면 "로펌은 다 협업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영역 간의 벽을 허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수익 구조와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올촌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오래전부터 시스템으로 풀어왔고, 복잡한 사안이 들어오면 누가 가져온 일인지와 상관없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감사할 줄 아는 구성원들의 협업 태도가 전제돼야 합니다. 올촌이 사람을 직접 겪어보



법무법인(유) 올촌 김건희 변호사

기본법을 탄탄히 다져 두는 것이 이후 어떤 분야를 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분명히 하되, 기본법 공부만큼은 끝까지 성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 뽑으려는 이유도, 이런 협업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인성과 태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올촌을 꿈꾸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김건희 변호사:** 수시 채용이 늘어나며 여러 변화가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로스쿨 3년은 법의 기본을 충실히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로스쿨에서 처음 법을 접하다 보니 초기에는 이해보다 암기에 그치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지식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법을 탄탄히 다져 두는 것이 이후 어떤 분야를 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분명히 하되, 기본법 공부만큼은 끝까지 성실히 해주셨으면 한다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웃음)

**송호성 변호사:** 요즘 로스쿨생들은 AI를 비롯한 환경 변화 속에서, 과연 몇 년 뒤에도 자신이 생각했던 자리가 존재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의사결정의 적법성과 책임 소재를 판단해 주는 법률가의 역할은 세상이 크게 변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 남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법률가의 가치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막한 시기일수록 스스로 그려본 미래의 방향을 붙잡고, 책임감 있는 프로페셔널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로스쿨의 시간을 버텨 나간다면 각자에게 맞는 길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올촌에 오시라"는 형식적인 말보다는,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응원의 마음을 법조 선배 입장에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과제

김두열

명지대학교 경상통계학부



조귀동

프로네시스 전략 & 리서치 대표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은 최근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혁신의 충격처럼 외부적 요인 뿐 아니라, 법조인의 인적 구성이나 업무 내용의 변화와 같은 내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기초적인 사항으로, 1)시장의 성장 추세, 2)인력구조의 변화, 3)인공지능에 대한 대비라는 세 가지 측면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정보들이 법률서비스 시장의 최근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 및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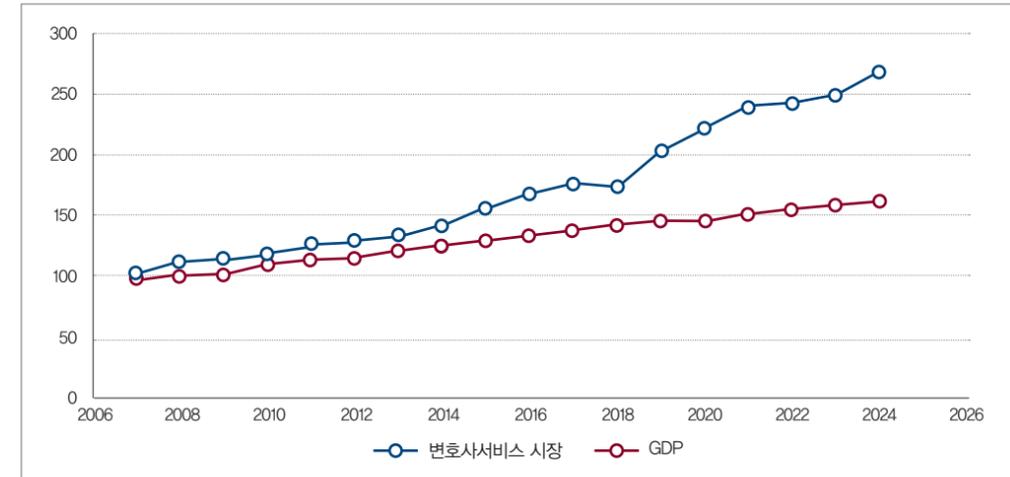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성장하고 있을까 아니면 쇠퇴하고 있을까? 국세청 통계는 전자를 뒷받침한다. 「국세통계연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변호사

비스 시장의 규모는 9.6조원이다. 관련통계가 처음 제공되는 2007년을 기점으로 볼 때, 2024년 변호사 시장의 규모는 2.7배 증가했고,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5.6%씩 성장한 결과이다 (그림1).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대비해 보면 이러한 성장세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 그림1에 제시한 것처럼 2007-2024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GDP는 1.6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였다.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률서비스 시장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경제성장장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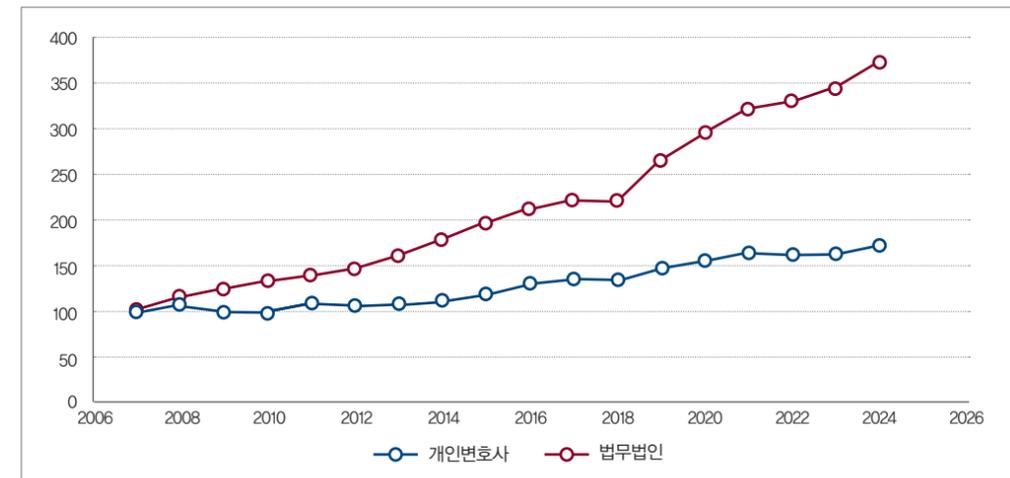
법률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양적 팽창과 아울러 구조변화를 수반했다. 구조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지만, 법무법인의 비중 확대가 두드러진다. 법무법인의 증가는 단순히 업무 방식의 형식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도 연결이 되었다. 그림 2는 2007-24년 기간 동안 변호사 서비스 시장에서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 매출을 분리해서 제시한 것인데, 해당 기간 동안 법무법인의 매출은 연평균 7.5% 증가했으며, 그 결과 2024년의 매출 규모는 2007년보다 3.7배 늘어났다. 반면 개인 변호사의 매출은 2007-24년 동안 1.7배

[그림1] 변호사 시장의 성장, 2007-2024 (2007=100)



주: 변호사시장 규모는 국세통계연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기준액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서 실질화한 결과이며, GDP는 실질GDP이다. 자료: 국세통계연보

[그림2] 개인변호사와 법무법인의 매출, 2007-2024 (2007=100)



주: 각 지역의 규모는 국세통계연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기준액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서 실질화한 결과이다. 자료: 국세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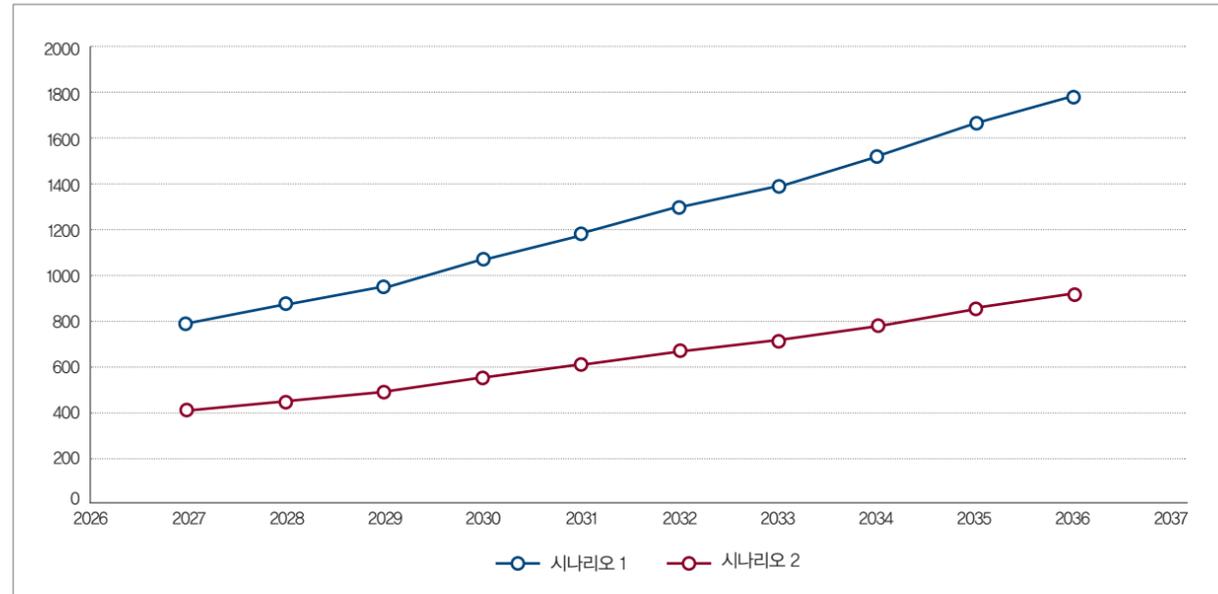
증가했는데, 이는 법무법인 매출 증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GDP 증가율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 2. 변호사 은퇴와 대체 인력 공급

법률서비스 시장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기업 측의 법률 서비스 수요 증대에 맞추어 법조 전문 인력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변호사 인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중요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것은 고령 변호사들이 은퇴에 따른 대체 인력 공급 문제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매년 전체 변호사(판사·검사 등 타 법조 인력 제외) 수의 3.6%에 해당하는 3만1500명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 2만9700명이 대체 수요다. 이는 2024년 미국 로스쿨 졸업생(3만3931명)의 8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림3] 변호사 은퇴에 따른 대체 수요 추정치, 2027-2036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대체수요 문제가 변호사 인력 공급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1980년 이전에는 사법시험 합격 인원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들이 은퇴한 뒤 그 자리를 대체하는 인력 공급이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20년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100명에서 300명, 500명, 1000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게 되는 2030년 경부터는 대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현재 대체수요를 정확히 추계하기는 매우 어렵다. 단, 변호사자격자들이 75세까지 활동하고 76세에 은퇴한다는 가정에 따라 향후 은퇴에 따른 대체수요를 추정할 결과가 그림3이다. 은퇴 전 10년간 노동시간이 그 이전보다 50% 정도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시나리오 1), 2027년 대체 수요는 788.4명이며, 2036년이 되면 1784.5명이 된다. 2030년대가 되면 현재의 로스쿨 졸업생과 변호사 시험 합격자 규모로는 대체 수요에만 충족할 수 있을 뿐 확장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다. 고령 변호사가 은퇴전 10년 동안 그 이전보다 75% 수준으로 일한다고 가정하더라도(시나리오 2), 대체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한국의 법조 인력 시장은 2030년 이후 대규모 대체 인력 폭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할 수 있다. 공급이 제한된 법조 인력 특성 때문에,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결원 충원과 신규 수요가 겹치며 체감 부족이 커질 수 있다. 대체 수요 증가는 구조적인 문제로 예측하기 쉬운 반면,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체 수요를 변호사 공급 산정에서 핵심 변수로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 3. AI 확산과 법률서비스 시장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 기술 발전이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런 가운데 2026년 전미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EA) 연례회의에서 윌리엄 비치(William Beach) 전 미국 노동통계국(BLS) 국장이 한 발언은 많은 주목을 끌었다. 그는 AI가 코딩, 디자인, 법률 리서치 등 화이트칼라의 핵심 업무를 대체하면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는 ‘대체 단계’에 진입했다고 경고했고, 이는 우리나라에도 크게 소개되었다(매일경제신문, 2026).

하지만 실제 노동시장 작동 양상은 AI가 전문직, 소프

[그림4] 미국에서 주니어 변호사 채용 공고와 제시 급여 추이



자료 : Financial Times (2025a).

트웨어 개발자,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주장과 사뭇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가 정보 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니어 변호사 채용 공고 건수와 제시하는 급여는 하강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타 일자리 대비 늘어났다(Financial Times, 2025b, 그림4). 영국도 중형로펌을 중심으로 채용 경쟁이 벌어지면서 변호사 급여가 큰 폭으로 뛰었다(Financial Times, 2025a).

몇몇 한국 언론이 보도한 것과 달리 미국 노동통계국의 발표 내용도 변호사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변호사 수가 2024년 86만4800명에서 2034년 90만7000명으로 4%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5a). 매년 생겨나는 변호사 일자리는 3만 1500개(2024년 변호사 수의 3.64%)로 추정했다. AI로 상당수 업무가 자동화되겠지만, 법률 서비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데다 타 직업으로의 전직이나 퇴직으로 인한 대체 수요로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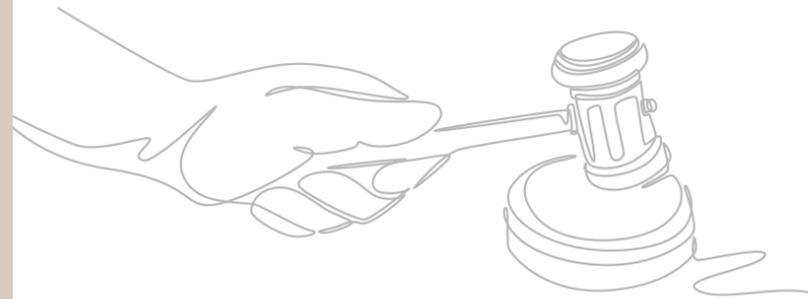
AI가 법률 시장과 변호사의 직무,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의 수요·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위축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 4. 결론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은 수요의 증대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의 확대에 의해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은 수요 위축보다는 공급 제약으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10년 동안 고령 변호사의 은퇴가 급격히 증가할텐데, 이를 대체할 신규 인력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법률서비스 시장의 축소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의 확산이 변호사에 대한 수요를 줄이리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적어도 이런 전망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법률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은 시장 확대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력공급 증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미국로스쿨협의회 연례총회 참관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속에서 다시 묻는 '법조인의 가치'



이탁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  
변호사

미국로스쿨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AALS) 연례총회가 2026년 1월, 4일간 열렸다. AALS 창립 12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연례총회에서는 그동안 AALS의 성취에 대한 상찬이 이어졌다. 1900년 뉴욕주에서 35개 법학대학원 소속 47명의 교수와 학장들이 모여 첫발을 댄 AALS는 도제식 교육에서 로스쿨 중심의 체계적인 법학교육의 전환을 주도하였다. 전문적인 학문 분야로서 법학을 새롭게 정립하고 “법의 지배”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려는 AALS의 목표는 의견상 충분히 달성되었다. 현재 200여 개의 로스쿨이 AALS의 회원이며, 소속 교수진은 2만명을 넘는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절반은 법조인 출신이라는 사실은 미국 내 법학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연례총회 기간 중 실질적인 “법의 가치”를 회의하게 되는 사건들이 연거푸 발생하였다. 미국 정부는 모호한 국제법적 근거를 대며 베네수엘라를 침공하였고, 국토안보보좌관은 “국제 예의범절(international niceties)”에 미국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민단속국(ICE)이 한 시민을 썩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발제자들은 현재의 이민단속 관행이 “헌법에 대한 사기”에 가깝다고 개탄했고, 한 원로교수는 사석에서 다음 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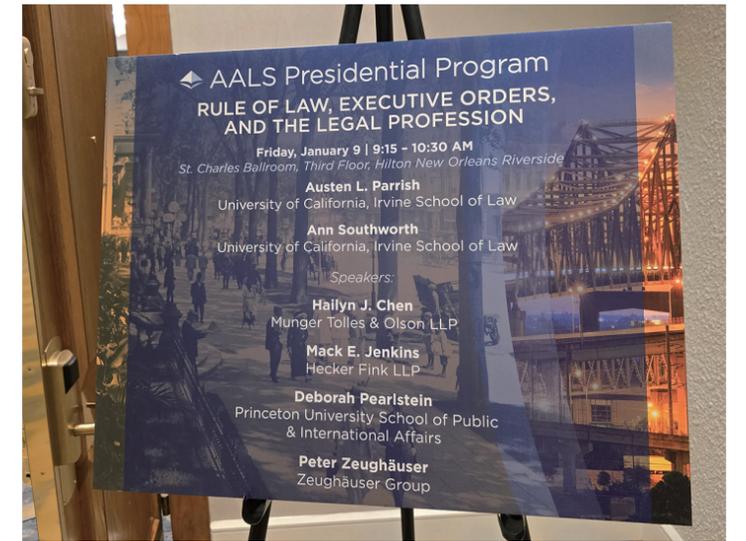
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토로하였다.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맞선 대학의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한 참가자는 “용기있게” 세션을 개최한 AALS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연례총회는 “법의 가치”에 대한 작금의 도전이 “법조인의 가치”의 절화로 이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발표자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수호하는 관리자이자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법조인, 그리고 그러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교육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뉴햄프셔주 법원의 맥도널드 대법원장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혼자 서 있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 모두가 바꿔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한 변호사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시점에(right time to do the right thing)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며 감사해 하는 제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미국 로스쿨 지원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2025년 10월 초 기준 전년 동 시점 대비 33%가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하였다. 미국 로스

발제자들과 참석자들은  
임상법학교육이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이들이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윤리적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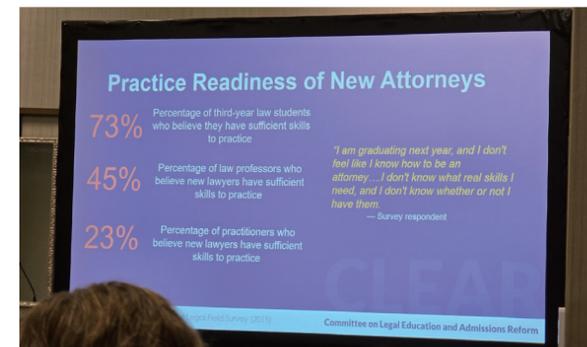
마지막 날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대학의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세션이 열렸다

쿨 입학시험(LSAT) 응시생도 2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대학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유색인종 지원자가 33% 증가하였다. 사회정의 실현하려는 욕구 외에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인공지능의 발전도 법조계 진출에 대한 관심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서비스 시장 채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법조계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분야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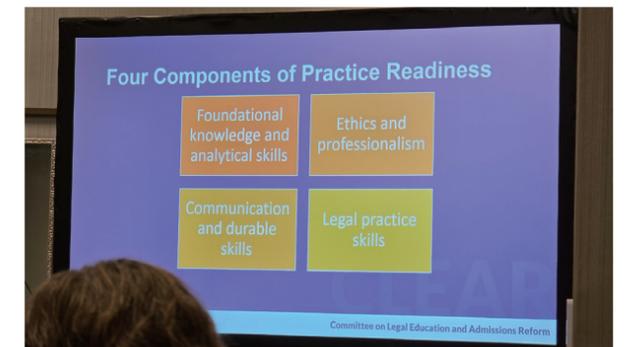
물론 변호사 채용 시장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발제자들은 AI가 점차 저숙련 업무 처

리에 능숙해지며 저년차 변호사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난 15년간 점차 쇠퇴하던 전통적인 도제식 교육 모델은 이제 최종적인 종말을 맞았다고 평가되었다. 시니어 변호사가 주니어 변호사를 멘토링할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고, 기술활용이 실무 교육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로스쿨들은 실무 투입이 가능한(practice-ready) 변호사를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스쿨 내 임상교육(리걸 클리닉), 외부



새롭게 필드에 진출한 변호사들의 실력에 대한 '선배'들의 우려는 어디나 비슷하다



“실무 투입 가능”의 평가기준은 1. 기초 지식 및 분석 기술, 2. 직업윤리 및 전문가적 태도, 3. 소통능력 등 지속가능한 업무능력, 4. 법률 실무 기술로 나뉜다



참가자들과 대화 중인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왼쪽부터) Austen Parrish 미국 로스쿨협의회 회장, Kellye Y. Testy 대표,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탁건 사무국장

실습(익스턴십) 등 경험적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법조인이 법 지식을 갖고 있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전문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로스쿨 인가 기준이 2022년 새롭게 도입되기도 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로스쿨 원장들은 “소송 대리인(attorney)에 그치지 않고, 조연자(counselor)이자 문제 해결사”, “훌륭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을 양성해야 하는 로스쿨의 목표를 이야기하였다.

로스쿨 뿐만 아니다. 각 주 법원은 연합하여 ‘법학교육 및 변호사자격 부여 개선 위원회’(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Reform, CLEAR)를 2023년 설립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로스쿨 교육, 변호사 자격 부여 방식과 실무교육의 개선에 대해 18개월간 연구를 거쳐 2025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주 법원의 주도 하에 로스쿨과 법조계 전체가 참여하는 변호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는 로스쿨 학생들이 재학 중 의뢰인 중심의 실습 경험(client-focused experience)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에도 멘토링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

를 지향한다.

변호사 자격 부여 기준과 방식의 개선도 제안되었다. 현재의 변호사시험(bar exam)이 변호사의 실무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험 준비로 인해 로스쿨 본연의 법학 교육이 왜곡되고 있으므로,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험 분할 응시, 오픈북 시험 도입, 엄격한 시험시간 제한 완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합격 기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합격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로스쿨 졸업생들이(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이 실증되었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사회적 수요 대비 변호사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변호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거 기반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범위 내에서 최저 수준의 합격 점수를 설정하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없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로스쿨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감독 하에 실무수습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

는 일부 주의 제도가 혁신적인 대안의 실례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실무역량 강화의 핵심 방안으로 임상법학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강조되었다. AALS 125년 역사를 회고하는 발제에서도 임상법학 교육 발전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1960-70년대 태동된 임상법학교육은 이제 독자적이고 중요한 학문 분야로 자리 잡았다. 전미 임상법학교육 연례회의는 AALS 내에서 연례총회 다음으로 큰 규모의 행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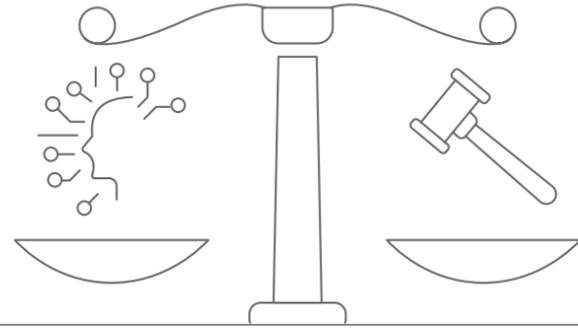
발제자들과 참석자들은 임상법학교육이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이들이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윤리적 전문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 10여 년 전에 도입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50시간의 공익활동 의무 제도는 주 내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을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사회적 소수자의 사법접근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차원에서 미국로스쿨협의회 연례총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협의회는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상

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연례총회 참관과 여러 관계자들과의 면담은 미국 법조계와 법학교육의 현안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에 확인한 미국 로스쿨 교육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식 전달자’에서 ‘문제 해결사’로의 법조인 상의 전환이다. AI가 저숙련 범무를 대체하는 시대에 더 이상 단순한 법 지식 암기는 경쟁력이 될 수 없다. 로스쿨은 소송 대리인에 그치지 않는 조연자를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적 정체성’을 갖추도록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둘째, 실무 중심 교육과 평가 체제의 혁신이다.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 자격 부여는 암기형 교육의 결과가 아닌 실무역량 측정 결과에 기초하여야 하고, 로스쿨 교육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셋째, 법학교육의 발전은 ‘증거에 기반한’ ‘법조인의 사회적 수요’에 기초하여야 한다. 사법정의 실현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조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여전히 미충족되어 있다. 한국 로스쿨이 직면한 과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급변하는 법조환경과 법치주의에 대한 격렬한 도전 속에서, ‘법조인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 인공지능 시대의 법학교육



## 홍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획대의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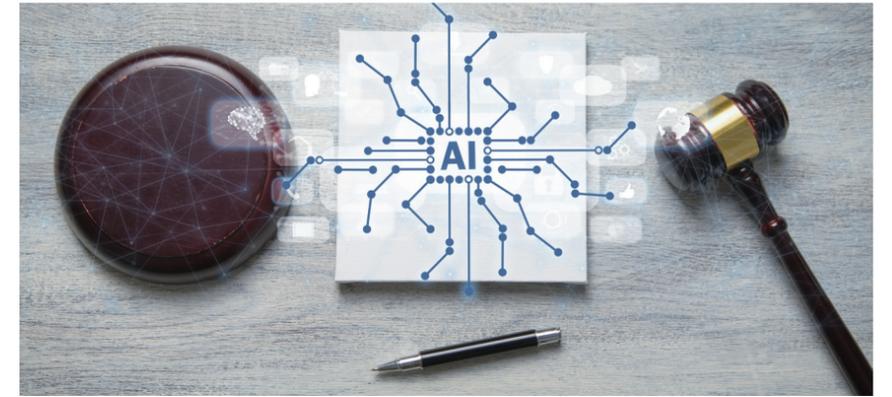
인공지능에 대체될 직업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려는 시도는 부질없어 보인다. 범용인공지능(AGI)이 상용화될 날이 목전이라고 하고 그것을 탑재할 인간형 로봇의 신체능력이 사람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남아 있을 리 없다. 능력이 따라잡힐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가운데 법률가의 노릇은 비교적 이른 때에 잠식될 것 같다. 사안에 대해 인공지능이 그릇된 답을 내어놓는 일이 많으며, 논증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지만 이는 사소한 단점이다. 프로야구에 ABS(Automated Ball-Strike System)가 도입되어 관전 스트레스가 없어진 것을 생각해 보자. 인간 심판의 눈 대신 레이저로 재는 스트라이크 존이 합리적이거나 익숙해서가 아니라, 오직 특정 팀, 개별 선수를 가리지 않고 기계가 판정한다는 그 ‘공평함’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법리에 들어맞는 정답보다, 최소한 신분이나 돈, 연줄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기계적·중립적인 판단을 오래 전부터 고대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지금 검색과 분석에 치중된 인공지능의 법실무역량은 머지않아 대부분의 사법적 기능을 대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로스쿨은 이러한 시대의 거대한 물결 한 가운데 떠 있는 애처로운 방주다. 그에 몸을 의탁한 학생들은 작은 창문을 통해 지금의 엄청난 쓰나미를 불안한 마음으로 결눈질한다. 밀어닥치는 해일에 배의 문을 열고 막 나서자마자 순식간에 떠내려가버린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달리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설과 판례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시시포스의 노동을 하루하루 이어나갈 뿐이다. 이 시대에 터무니없는 일임이 틀림없

지만, ‘수험법학을 하지 말라’고 쉽게 나무랄 수는 없다. 로스쿨 교수 가운데 출제 빈도 높은 판례를 골라 암기하기 좋게 요약, 정리해 주는 역할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 법전원 안과 밖의 분위기가 이처럼 너무도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때에 학생과 교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까닭은, 그들이 오히려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따로 있다.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불문하고 수많은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변호사시험’이 바로 우리의 법학교육을 붕괴시키는 단독정범이다. 종이로 된 판례집을 찾아보던 30년 전, ‘법고를 LX’로 검색하던 20년 전과 똑같은 모양새의 문제를 여전히 내어 풀게 하고 있다. 단 3년 안에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합격률이 약 절반인 상황에서, 그 누가 판례 암기 이외에 다른 것을 해볼 엄두라도 낼 수 있겠는가?

지구상 모든 자료를 검색·번역·분석하여 답을 제시해 주는 도구를 대부분 사람이 손에 들고 다니는 때에, 이제는 법학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선례를 알고 있는지 여부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반면, 전혀 접해 보지 못한 다양한 사안들이 밀려드는 때에, 그 사실관계를 이해하여 법리적으로 풀어내고 법률규정에 상응시켜 그것을 논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다. 원래 법학이란 그런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유일한 사명이 된 것이다. 법률가는 당연히도 인공지능이 생각해 낸 제안 가운데 우열을 가려내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더 좋은 논거를 생각해 내고 이로써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역량을 위해 ‘기초법학’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흔히 ‘법철학’, ‘법학방법론’ 등을 필수과목 또는 변호사



시험 과목에 추가할 것인지의 논의로 흐르지만, 그것만으로 논증하는 능력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법의 열매인 ‘판례’를 배울 때 그 위에 붙어 있는 ‘학설’의 가치를 알 것, 그것이 뻗어나온 ‘원칙’이라는 줄기에 익숙해질 것, 그리고 그 원리들이 자리한 ‘각 법률 이념’의 뿌리를 자신의 것으로 갖고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과실이 전혀 없는 사용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판례를 읽을 때, 과실책임설과 무과실책임설의 다른 입장을 배워야 하고, 그것이 각각 책임원칙과 형사사법의 기능적 효율성이라는 다른 방향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나아가 형법이 형벌의 ‘응보’와 ‘예방’을 실현하는 법임이 그로부터 체감되고 있어야 한다. 사회 안에서 개별 법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고자 논쟁하는 로스쿨 수업! 눈물 나도록 그리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다 같이 키워나가게 될 것이다.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은 이미 이런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받은 영재들이다.

지금 상황으로 되돌아온다. 그럼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변호사시험제도가 바람직한 법학을 복돋워 주지는 못할망정 희망은 놓지 말아야 한다. 이 사회의 수요를 외면한 채 오직 시험에 붙기 위해 만여 개의 판례를 머릿속에 옥여넣고 있는 학생들의 미래를 단 한 번이라도 떠올린다면 시험을 이렇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가에게 사건을 맡기는 일반시민들의 기대와 좌절을 생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안 없는 비판이라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몇백 개의 표준판례 안에서만 출제할 것, 선택형(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축소할 것, 기초과목 선택형 시험의 시기를 앞당길 것, 궁극적으로 학설·판례 검색도구를 제공하여 시험을 치를 것 등등... 이미 여러 제안이 쌓인 지 10년 가까이 되었다. 힘든 일일까? 오랜 숙원이었던 CBT(펜이 아니라 컴퓨터 자판으로 문제를 푸는 시험방식)가 한순간에 도입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려고 마음 먹고 머리를 맞대어보면 곧바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시험제도와 관련된 누구든 변호사시험 개혁에 대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같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남긴다. 엄청난 분량의 제1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답안지를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채점하면서 겨울방학 전부를 보내고 있어서, 그 영혼 없는 채점에 인생을 맡겨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딱한 처지가 순간순간 떠올라서 비로소 든 생각만은 아니다.

# 산책길의 농담이 현실이 되기까지

## - ‘법률사무소 앵커’의 개업 분투기



김도희

現 <법률사무소 앵커> 대표변호사  
前 TJB 대전방송 아나운서  
前 강릉MBC 기자

### 잘못 온 것 같았던 로스쿨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은데...’ 로스쿨 입학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든 생각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는 회사의 횡포에 격분해 들어왔지만, 로스쿨은 분노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끝없는 공부에 체력은 바닥났고 소송 당사자로 법원을 오가며 마음도 지쳐만 갔습니다.

그 시절, 저를 살린 건 ‘저녁 산책’이었습니다. 노동법학회에서 만난 동기(지금의 남편)와 “우리 나중에 같이 개업하면...”으로 시작되는 상상을 산책길에서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된 수험생활을 잊기 위한 도피성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거듭될수록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산책길에서의 무수한 이야기가 쌓이고 쌓여 2025년, 세종시에 ‘법률사무소 앵커’라는 닷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브랜드 : 과정을 공유하다

개업 초기, ‘진정성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초보 사장으로서 부딪쳐 가는 과정을 그대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완성된 모습을 ‘짤’하고 보여주는 세련된 방식을 내려놓고 가구를 조립하며 킁킁대는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게 인쇄된 첫 명함 1,200장을 받고는 “여러분, 시력테스트용 한정판 굿즈가 생겼어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속상할 법한 일도 함께 나누면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소중한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로서의 신뢰가 떨어지면 어쩌나’ 망설이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완벽한 결과물보다 서툴지만 차근차근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저희의 태도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진심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작은 사무실의 생존 전략 :

#### ‘다름’이 곧 ‘경쟁력’

저희는 아직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광고 경쟁에 뛰어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사무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째, 묵묵히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승소 사례를 나열하기보다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이 일에 임하고 있는지 적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끌어모으기보다 저희의 철학에 공감하는 분들이 저희를 ‘발견’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전문 분야’보다 ‘사람’에 주목했습니다. 개업 6개월 무렵,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전문 분야를 더 이상 고집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저희를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교사와 공무원의 고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법대 출신이라는 저희 부부의 배경과 교사 경험이 있고 교육청에서 교권 전담 변호사로 근무한 남편의 이력을 살려 교권침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룬 글을 발행했습니다. 현장의 언어로 진솔하게 경험을 써 내려가자, 신기하게도 저희와 결이 꼭 맞는 의뢰인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요즘 저는 질문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코칭’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때는 의뢰인에게 깊이 감정이입하는 제 성향을, 고쳐야 할 단점이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만족’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기자와 아나운서 시절 체득한 경청의 태도에 코칭 기법까지 더한다면 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해도 온기는 사람만이 주고 받을 수 있으니 정서적인 지지와 응원은 앞으로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 단단한 미래로 이어질 탐색의 시간

사건이 덕분에 잘 마무리되었다며 직접 농사지은 쌀을 들고 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벅찬 마음을 누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개업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법률사무소 앵커’라는 이름에는 삶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곁에서 단단하게 붙잡아드리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거센 풍랑을 지나 평범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의뢰인들을 볼 때마다 이 사무실을 만든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곤 합니다.

3월의 시작점에 서 있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향로를 찾기 위한 탐색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어느 산책길에서의 농담 같은 말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듯이, 여러분의 머릿속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그 놀라운 순간을 꼭 맞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머지않은 미래에 동료 변호사로서 반갑게 인사 나눌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 결론 정 해 진 재판 아냐 ? ”  
법 조 계 불 신  
끊 으 려 면



안경준

세계일보 기자

법조기자로 지내며 지난해만큼 ‘사법불신’을 체감할 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른바 ‘3대 특검’의 재판이 중계되기 시작하고, 정치권에서 특정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판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 아닌 취재원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OOO 판사면 결론이 정해진 것 아니냐”, “법 조항이랑 상관없이 판사 마음대로 한다던데?”

사법불신이 최근에야 생긴 현상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한창일 때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블로그 독후감이 잠시 논란이 되 글을 몇 개 찾아본 적이 있는데, 2003년 글에도 사법불신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해당 글은 ‘사법개혁 논의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문 전 권한대행이 법원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블로그에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당시 사법개혁 안건으로 대법관의 ‘성향별 안배’와 ‘법관토론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과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이 함께 대법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지금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사법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법관의 성향별 안배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같이 사법행정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회의제도 생겼습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이 자리잡았고 법조일원화를 통해 다양한 경험의 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를 향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가 ‘판사가 특정 연구회 소속이냐’고 물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법관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며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불신은 법조계 전반으로까지 확산한 모양새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인공지능(AI) 상담을 먼저 받고 온 의뢰인들이 골칫거리라고 말합니다. AI로 단순 검색한 판례

법조기자인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판사들이 양형을 정하는 매커니즘을 배우고 변호사들이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지 확인하며 그 간극을 좁혀갈 수 있었습니다. 법조계에 반감을 갖던 많은 취재원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자 진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입법자들이 진정으로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개혁을 시도한다면 ‘옥상옥’식의 개편이 아닌,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을 변호사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고, 변호사가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 주더라도 변호사를 믿지 않고 다른 변호사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여기에 변호사들의 생존경쟁이 더해지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박리다매로 사건을 수입하는 변호사나 과장광고를 하는 로펌이 늘며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은 점점 커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통계표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20년 50건, 2021년 49건, 2022년 59건대에 머무르다가 2023년 126건, 2024년 1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법조계에 쌓인 의문을 기사를 통해 풀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제보도 다양합니다. ‘상담하면서 승소 가능성을 부풀렸다’를 시작해서 ‘변호사가 서면을 성의 없이 썼다’, ‘변호사가 내 사건만 방치하는 것 같다’, ‘갑자기 담당 변호사가 바뀌었다’ 등 사례가 여럿입니다.

재밌는 점은 불신으로 가득 찬 제보자가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두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이 기자이기에, 수사기관과 판사, 변호사를 비롯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까지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양형에 대한 불만부터 변호사의 발언까지 불만이 있던 당사자들도 자초지종과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그간 표출했던 분노가 무색하게 쉽게 납득하고 돌아갑니다.

불신의 원인은 대부분 불투명성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결이 어떤 원리로 내려지는 것인지, 변호사가 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시민들은 의혹 제기에도 쉽게 넘어가고 의심을 키웁니다. 쉽게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으니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논의되는 사법개혁안은 불투명성을 걷기 보단 키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소원제가 여러 우려 속에서도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사법불신일 겁니다. 대법원까지 지난한 재판을 겪은 후에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심리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 대해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를 현재로 끌고 간다고 해서 결과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법적으로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청구하도록 해준다면 승복하지도, 법 존중 의식도 없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법 왜곡죄’ 역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평범한 국민이 1심부터 3심까지 재판을 이어나가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법관이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며 추가로 소송을 걸어 싸워보려는 시도는 정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이 신설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법조인은 “법 왜곡죄는 일반 국민을 위하기보다, 생각해보면 주로 정치인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기자인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판사들이 양형을 정하는 매커니즘을 배우고 변호사들이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지 확인하며 그 간극을 좁혀갈 수 있었습니다. 법조계에 반감을 갖던 많은 취재원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자 진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입법자들이 진정으로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개혁을 시도한다면 ‘옥상옥’식의 개편이 아닌,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과대학 시절을 생각하면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자고 아침 시험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일원동 먹자골목 뒷 오솔길을 뛰어서 병원 강의실로 달려가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대학 시절 공부의 압박감을 가지고 지낸 것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나는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병원 밖을 떠난 적이 없어 로스쿨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 내가 아는 ‘변호사’라고는 ‘쉬헬크’, ‘우영우’, ‘사울 굿맨’, ‘하비 스펙터’ 정도다. 의학드라마를 보고 의사들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에 동떨어진 것처럼 내가 로스쿨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말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 아닐까? 하지만 나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로스쿨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의학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순 있을 것 같다.

## 더 멀리 가기 위한 시작, ‘마음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한 조사에 따르면 96%의 로스쿨 학생이 유의미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의대생 70%나 일반 대학원생 4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로스쿨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 의학, 치의학, 수의학, 약학 등 전문직 학과 학생들과 로스쿨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로스쿨 학생들이 가장 열악한 정신건강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1년에 미국 39개 로스쿨 5,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에 비해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비율이 18%에서 33%로, 불안장애의 경우 21%에서 40%로 크게 증가했다. 경쟁이 심해지는 사회에서 더욱 더 로스쿨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나빠지고 있다.

또한, 법학 교육과정을 시작한 이후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났다. 로스쿨 입학 전 약 8~9%에 불과하던 우울감 경험률이 한 학기 후 27%, 1년 후 34%, 졸업 무렵에는 4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로스쿨 생활 동안 우울 증상 유병률이 4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는 법조인이 되는 과정 자체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자살과 관련된 통계다. 2021년 조사에서 전체 로스쿨 학생의 33%가 생애 동안 한때 자살 시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년간 11%의 학생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자세한 조사 결과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더욱 높은 자살률을 고려해보면 미국의 상황보다 더 나을 것 같진 않다.

위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첫 1년 동안 급격히 늘어나고, 그 1년 동안 우울하지 않고 지낸 학생들의 대부분은 졸업 때까지 건강하게 보낸다는 점이다. 즉 로스쿨에 입학하고 첫 1년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보낸다면 남은 시간도 건강하게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첫 한 해를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스포츠의 시기가 아니라 우울하고 지치지 않게 변화에 적응하는 시기로 보내는 것은 어떨까.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이 처음부터 앞서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지나치게 완벽주의적 경향을 버리는 것, 무리해서 어울리려고 움주하지 않는 것, 일주일에 일정한 시간은 휴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 건강한 취미를 만드는 것, 하루에 한 번 햇빛을 보고 산책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기분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것 같은 일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많은 학생들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면 진로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혹은 사회적 낙인 때문에 도움받기를 주저한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으로서 이러한 걱정이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다지 보지 못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한다고 반드시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약을 먹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나아질 수 있다.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스스로의 약한 부분도 인정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고 훌륭한 모습이 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통계와 같이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실제로 받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2021년 조사에서 69%가 최근 1년간 정서적, 정신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상담 등 전문 도움을 받은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쳤다. 위에서 언급한 조사들이 대부분 미국 등 서구권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 전반의 자살률이 높고 우울증과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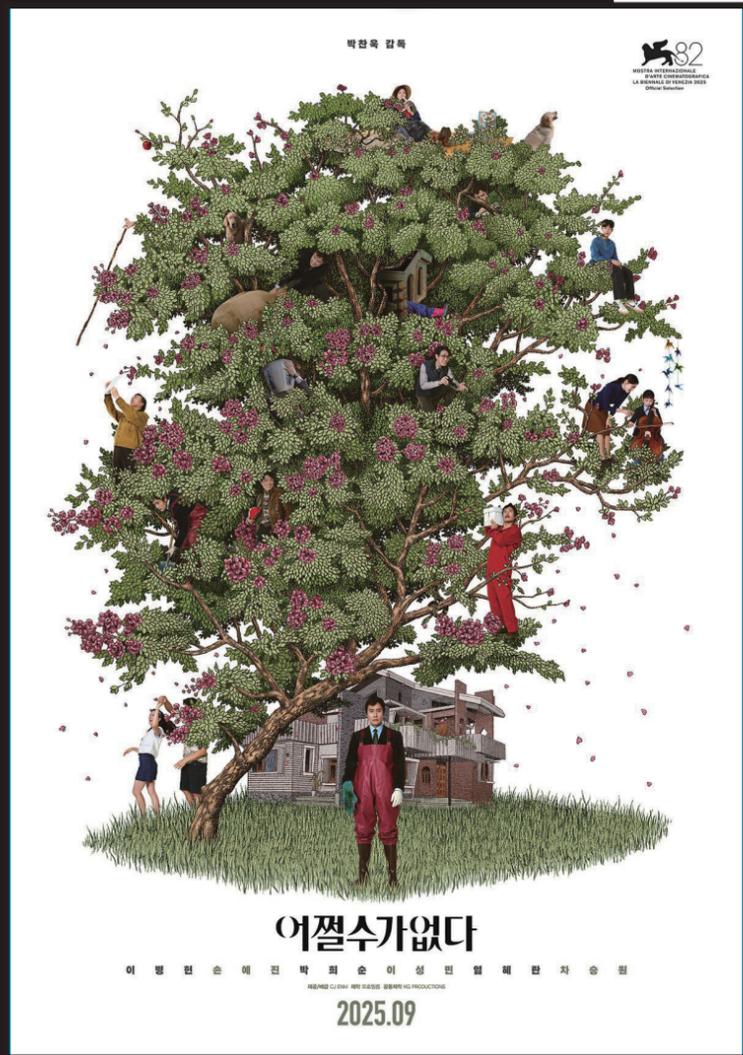
지나서 보니 의대 시절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계속할 수 있는 직업이 되고, 그러한 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작은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로스쿨을 시작하는 여러분도 지금 당장의 성적이나 순위 매몰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자신을 돌보며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건강하게 시작하는 것이 결국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이다.



명우재

2025 -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밀의료센터장  
2022 -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  
2018 - 202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 ‘피할수가없는’ 시작을 위하여.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블랙코미디 장르가 상대적으로 척박한 한국 영화관에서 간만에 나온 웰메이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르의 한계 때문인지 한국 관객들 사이에서 평이 꽤 갈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우리에게 매우 아쉬운 결과지만 아카데미 후보작 선정에서도 탈락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 아주 후한 리뷰를 남겼고 극장 관람작으로서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국내 영화계의 다수 수상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불발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언뜻 모순되는 말 같지만 기실 이 영화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장 국내 관객들 사이에서도 감상평이 양극단에 몰려 있었다.

나는 이 영화를 개봉 즈음에 영화 동호회의 정모 작품으로 만났다. 변호사가 되면 당연히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사무실 주소지에 따라 어느 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되는지가 결정되는데, 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도 지방변호사회 중 한 곳이다) 회원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원을 받는 동호회 중 하나가 영화 동호회이다. 영화를 좋아하는 나는 당연히 영화 동호회에 가입해서 열심히 영화를 보러 다니고 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영화 동호회의 정모 작품으로 선정됐다는 의미는 그만큼 기대작 이면서 ‘must-watch’ 목록에 올랐다는 방증이



고봉주

리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률 로글로그> 칼럼 연재 중  
<고 변호사의 씨네마 법정>, <고 변호사의 뮤지컬 법정> 저자



다. 한국에서 박찬욱 감독의 위상만 고려하더라도 이견 없는 작품 선정이었다. 영화 동호회에서 관람을 할 때는 매년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 단체 관람 후 극장 구석에 모여서 각자 감상평을 짧게 나누는 것이다. 관람 직후 기억과 감정이 가장 선명하게 남았을 때 공유했던 회원들의 소감에만 한정해서 생각하더라도, 영화가 주는 감정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었다.

행복한 가정의 이유는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의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첫 문장처럼, 영화에서 좋았던 장면은 공통적으로 꼽히는 반면 별로였던 장면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의 쓴 맛은 비슷한 측면이 있었다. 영화의 끝맛이 달지 않은 이유는 주제가 가지는 내재적 우울함이 결말에서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암시하는 미래를 던져놨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내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등바등거린 주인공의 온갖 노력이 한낱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현실 인식이 머리를 강타하고, 그 상태로 상영관을 나온 관객의 감정은 당연히 가라앉을 수 밖에 없으리라. 실제 동호회 회원의 상당수가 감상평에서 미래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는 편리함보다 ‘인간의 대체 가능성’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토론했다. 마치 AI 시대에 임하는 변호사의 자세를 논하는 자리 같았달까. ‘평생을 바친 제지 회사에서 구조 조정으로 해고당한 근로자의 재취업 고군분투기’라고 한 줄 요약할 수 있는 이 영화의 마지막은, 재취업에 성공한 주인공이 서 있는 공장 작업장에는 더 이상 동료 근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거대한 기계만 가득 차 있는 장면이다. 수많은 작업 기계 옆에서 위태로워 보이는 주인공의 모습이 마지막 장면으로 각인되는 영화의 여운이 달기는 어렵지 싶다.

개인적으로 마침 이 파릇파릇한 봄에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다. 이 글이 나올 즈음엔 새로 옮긴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을 것이다.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환기를 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단순히 사무실 위치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동선이 모두 달라지기에 일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준다. 특히 이번 사

무실 변화는 여러 의미에서 나에게 새로운 ‘시작 2기’의 느낌을 준다. 변호사 경력 중 사무실 운영만으로 10년 차를 채운 세월의 무게감이 그리하고, 시기적으로도 봄이 주는 에너지의 강렬함 덕분에 더욱 그렇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결말이 암시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각자 저마다의 위치에서 자신의 상황에 영화를 대입하여 감정이입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트렌드이자 미래에도 가장 강력한 화두가 될 AI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직업, 더 나아가 산업군이 과연 존재할까? 더구나 변호사는 가장 먼저 없어지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직업군 상위에 항상 올라가 있다. 변호사의 미래에 대해 전망위적으로 들려오는 부정적 예측을 접하다 보면, 이미 현직에서 업을 영위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몰려오는 불안감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영화에 대한 나의 감상과 느낌이 그저 절망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높은 만족감과 함께 긍정적이었던 이유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집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본 것은 어느 정도 이미 결정된 미래의 어두운 면이지만, 확정된 미래라고 아직은 단정 지을 수 없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방향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이다. 아예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부터는 통제할 수 없는 무작위 미래가 아니라 각자의 역량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여지가 크다. 같은 영화를 봐어도 긍정과 부정으로 감정이 나뉘듯, 같은 미래를 앞두고도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백만 명의 삶이 다르듯 백만 가지일 것이다. 자, 이제 방향에 대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봄기운을 타고 저마다의 시작을 앞둔 모든 이들의 마음가짐도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주사위를 던질 때이다.



##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교육의 내실화와 실무 연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2025년 11월 25일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협의회를 비롯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

회가 공동 주최해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기조 발제로 문을 열었다. 이어 ‘표준판례 개정안과 실무 중심 법학교육 개선 방향’, ‘변호사시험 개선안과 실무 중심 법학교육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되며, 현행 교육과정과 시험 제도의 개선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AKLS) - 미국 로스쿨협의회(A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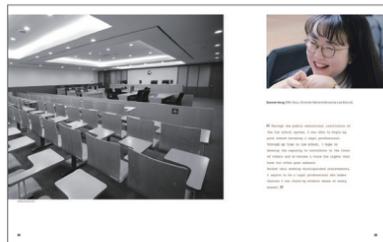
### 법학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월 6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미국 로스쿨협의회(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이하 AALS) 연례총회 현장에서 법학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홍대식 이사장과 이탁건 사무국장을 비롯해 Austen Parrish AALS 회장, Kellye Y.



Testy AALS 대표가 참석해 양 기관 간 지속적 교류와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발전과 법조인 양성을 위한 공동 연구 ▲연수·인턴십·파견근무·펠로우십 등 다양한 교육 기회에 관한 협력 ▲공동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26」 국문·영문 브로슈어 발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협의회의 역할과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를 종합적으로 소개한 국문·영문 브로슈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26’을 발간했다. 이번 브로슈어에는 협의회의 설립 취지와 주요 사업을 비롯해 로스쿨 인가기준, 입학전형, 교육과정, 법학적성시험(LEET) 및 변호사시험 제도 등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수록됐

다. 또한 전국 25개 로스쿨의 캠퍼스 사진과 함께 특별전형 및 지역인재 선발 현황, 장학금 수혜 비율 등 주요 통계 자료를 담아 제도의 공공성과 운영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2026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합숙 출제 실시

2026년 2월 1일부터 6일까지 2026년도 제2차·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위한 합숙 출제가 진행됐다. 이번 합숙은 올해 8월과 10월에 시행되는 모의시험 문제 출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홍대식 총괄위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해 총 85명의 출제위원이 참여했다. 출제진은 시험의 공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합숙 기간 동안 집중 검토와 교차 점검을 거쳐 문항을 확정했다. 2026년도 제1차 모의시험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제2차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제3차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7년도부터는 연간 2회 모의시험 체제로 전환될 계획이다.

## 2026년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육자 간담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월 23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육자 간 교류 확대와 교육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부에서는 ‘임상법학 교육 운영 사례 공유’를 주제로 리걸클리닉 운영 및 변호사 실무과목 교수법·운영 사례가 발표됐으며, 이어 운영상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임상법학 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영형국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DLG 공익법률센터장)가 맡았으며, 리걸클리닉 및 법조실무 담당 교수 등 임상법학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원장 취임

(2026.1~2월 취임, 학교 가나다순)



함태성 원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원장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원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지만 원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기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인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전철 원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영 원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홍식 원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철 원장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2026년 4월 3일 금요일 10:00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 주제1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좌장 :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1]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과제 \_ 김두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발제 2] AI시대, 법조인의 수요와 역할 \_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3]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와 대응 \_ 조귀동 대표(프로네시스 전략&리서치)

[토론 1] 법조수요에 부합하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의 필요성 \_ 이승준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2] 의대 정원 추계 논의에 비추어본 법조인 수요 측정 \_ 권정현 연구위원(KDI)

[토론 3] 시장변화와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법조계의 혁신 필요성 \_ 조원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DLG)

[종합토론]

## 주제2 현 법조인 양성제도는 한국사회의 공익적 필요에 얼마나 부응하는가?

좌장 : 유욱 이사장(재단법인 동천)

[발제 1]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인 현황 \_ 엄선희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

[발제 2]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_ 장보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3] 싱가포르 사례: 싱가포르의 공공영역 변호사 채용 및 커리어 관리, 변호사의 공익활동 촉진 방안  
Helena Whalen-Bridge 교수(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Faculty of Law)

[발제 4] 미국 사례: 임상법학 교육 및 경험적 학습을 통한 공적 마인드를 갖춘 변호사 양성  
Austen Parrish 원장(UC Irvine School of Law, 미국로스쿨협의회 前 회장)

[발제 5] 일본 사례: 일본 로스쿨 제도 현황 및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  
Kyoko Ishida 교수(Waseda Law School, 일본 임상법학교육학회 회장)

[토론 1] 박형식 과장 \_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토론 2] 추후 확정 \_ 사법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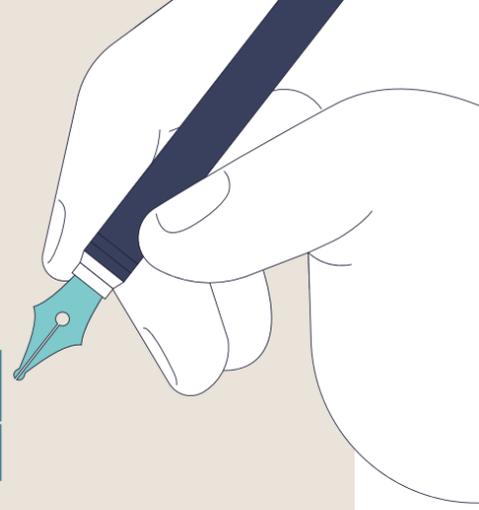
[토론 3] 박종흔 변호사 \_ 법무법인 신우, 중앙대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토론 4] 추후 확정

[종합토론]

주최 및 주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공동주최: 진선미 의원실, 조정훈 의원실, 사법정책연구원(추후 추가)

# 로스쿨 창, 로스쿨다임즈 원고 모집



당신은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나요?

당신의 공부법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로스쿨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로스쿨에 무엇을 말하고 싶나요?

로스쿨에서의 고민과 성장,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주제 : 자유 주제

- ▶ 실무수습, 인턴십 후기
- ▶ 나만의 공부법 소개
- ▶ 학회 · 동아리 소개
- ▶ 동기 · 교수님 · 우리 로스쿨 이야기
- ▶ 로스쿨 후배들에게 전하는 조언
- ▶ 변호사시험을 앞둔 소회
- ▶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이 밖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도 환영합니다.

- 분량 : 글씨크기 10pt, A4 1.5p 이내
- 접수 : lawta@akls.kr로 원고 발송
- 문의 : 02-752-2036~2037

※ 소속과 사진이 함께 게재되는 기명 원고입니다.  
※ 원고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law.khu.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s://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s://lawschool.wku.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i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lawschool.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